

한국의 裨補風水에 관한 始論

최 원 석*

〈차 례〉

1. 머리말
2. 비보풍수의 정의와 구성
3. 한국 비보풍수의 사상사적 기원과 역사적 변천
4. 한국 풍수비보의 형태와 기능
5. 동아시아의 풍수비보 양상
6. 맺음말

1. 머리말

이 글은 한국의 비보풍수에 대한 基調를 살펴보려고 한 始論的인 시도이다.¹⁾ 이를 위해서 필자는 첫째, 비보풍수의 정의와 구성체계를 수립하고자 하며, 둘째, 한국 비보풍수의 사상사적 기원과 역사적 변천과정을 개관하고자 한다. 그리고 셋째, 한국의 취락 경관에서 널리 드러나는 풍수비보의 형태와 기능은 어떠한지를 정리해 볼 것이며, 끝으로는 동아시아의 비보풍수적 양상을 살펴봄으로써 한국적 비보풍수의 보편성과 특수성을 생각해 보는 계기로 삼고자 한다.

이 글에서 필자가 전개하고 있는 핵심적인 논의와 주장은 다음 세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비보풍수의 개념 정의 문제이다. 비보풍수는 비보와 풍수라는 서로 다른 사상적 원류 및 지리적 사유방식이 역사적으로 결합한 것이며, 기존의 相地를 위

* 고려대학교 강사

주로 하는 풍수론에 대한 발전적 사유체계라고 본다.

둘째, 비보풍수가 지니는 한국 풍수사의 역사적 위상 문제이다. 한국의 풍수사에 서 비보풍수는 相地風水와 더불어 兩大 軸을 구성하고 있을 정도의 큰 줄기를 이루고 있으며, 따라서 한국풍수에서 비보론은 풍수이론의 구성체계에서 포함되어 재구성되어야 한다고 판단한다.

셋째, 비보풍수의 비교문화적 보편성과 특수성 문제이다. 비보풍수는 한국풍수에만 드러나는 고유한 요소가 아니라 중국, 대만, 일본의 오키나와 등지에 보편적으로 드러나며, 그 풍수비보의 원리나 방법, 형태, 기능 등에서 유사하나 각 국의 문화적 배경에 따라 특수성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2. 비보풍수의 定義와 構成

1) 비보와 풍수의 概念 비교

裨補는 地理裨補와 동의어로서, 자연의 지리적 여건에 인위적·인문적인 事象을 보태어 보완하고 주거환경을 조정·개선함으로써, 이상적 조건을 지표공간에 구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비보의 역사적 형태로는 불교적 비보와 풍수적 비보가 대표적이며, 비보는 풍수와 결합하여 비보풍수론으로 발전하였다.

비보의 문헌적 용례는 『高麗史』와 『朝鮮王朝實錄』 등 고려 및 조선시대 관련 문헌에 다수 나타난다. '裨補'는 '山川裨補'²⁾와 동의어로 사용되었으며, 조선왕조실록에는 풍수적 조건을 보완하는 개념의 일반명사로 쓰였다.³⁾ 비보에 대한 言說을 '裨補說'⁴⁾이라고 하였으며, 조선조에는 卑下되어 '裨補術'이라고도 칭하기도 하였다.⁵⁾ 비보처[사찰]를 일반적으로 지칭하여 '裨補所'⁶⁾ 혹은 '裨補寺社'⁷⁾라 했고, 이를 登載한 기록문서를 '裨補記'⁸⁾ 혹은 그냥 '裨補'라고도 썼다.⁹⁾ 비보 대상에 格을 두어 '國家裨補所'¹⁰⁾ 혹은 '國都裨補'¹¹⁾, '郡裨補所'¹²⁾ 등으로 구분 지어 일컫기도 하였다.

裨補의 성립 근거는 철학적으로 자연과 인간(혹은 문화)의 相補原理에 토대를 두고 있으며, 문화생태적으로는 환경에 대한 일종의 文化適應(cultural adaptation)으로서 調和를 증대시키기 위한 反應(reaction) 방식이다.¹³⁾

비보는 地理(風水)의 조건을 보완하는 人文的 行態를 일컫는 범주로서, 자연과 문화의 상보적 논리에서 출발한다. 자연에 대한 태도 및 관계에 있어서도, 풍수적 성향이 自然에 대해 依他的이고 決定論的인 경향을 띠는 것에 비해서, 비보적 성향은 自然에 대해 사람의 能動的이고 可能論的인 전망을 제시한다. 비보는 풍수상 凶地라도 적정한 비보적 수단과 방법을 吉地로 바꿀 수 있으며, 사람은 地氣의 영향을 調節할 수 있는 調整者로서의 位相을 지닌다. 풍수론의 주요 논리체계는 명당이 어딘 지를 ‘찾는’ 擇地論(相地論)이지만, 비보론은 자연환경과 균형을 이룸으로써 住居適地로 ‘가꾸는’ 造景論의 논리를 지닌다. 곧 풍수는 자연의 祥瑞로운 영향 하에 있을 수 있는 장소와 방법을 가르치나¹⁴⁾, 비보는 사람이 환경에 조화롭게 살 수 있는 適地로 가꾸는 방법을 가르친다. 따라서 비보는, 思想史的으로 기존의 ‘불교적[教宗] 靈地觀’이나 ‘풍수적 明堂觀’으로 대표되는 優劣的이고 差別的인 지리관에 대한 止揚이자 새로운 지리사상적 패러다임이다. 비보적 관념의 발단은 원시의 借力信仰 및 呪符信仰에 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고, 地理 혹은 地力 裨補는 이러한 신앙이 토지의 힘을 증가시키는 일에 응용된 것이다. 비보관념은 풍수설에 의해 시작된 것이 아니나¹⁵⁾ 思想史的으로 풍수와 긴밀히 결합하여 영향을 주고받았으며 그 과정에서 비보풍수론으로 전개·발전하였다.

비보의 法式은 협의의 裨補法과 壓勝法(혹은 讓鎮法)으로 구성된다. 裨補(法)[狹義]는 補 혹은 補虛, 培補라고도 호칭하며¹⁶⁾, 壓勝은 厭勝 혹은 讓讓이라고도 한다(以下 본문에서는 염승으로 통일해 사용함). 여기서 裨補는 地理環境의 不足한 조건을 더하고 복돋는 원리이고, 壓勝은 地理環境의 過한 與件을 빼고 누르는 원리이다. ‘讓讓’에 관해 『朝鮮王朝實錄』에 나오는 用例로써, ‘裨補란 讓讓·裨補하여 和氣를 順合하는 것’¹⁷⁾, ‘不足하면 裨補하고 過하면 讓讓한다’¹⁸⁾, ‘道說의 裨補法은 經祝讓讓法’¹⁹⁾ 등의 표현이 있다.

後述하겠지만, 한국비보설의 思想的 源流와 系統은 仙佛融合으로 규정할 수 있으며 역사상으로는 불교와 풍수 兩者의 결합형태에서 찾을 수 있다. 비보의 역사적 형태 중에는 통일신라시대와 고려의 佛敎的 裨補와 고려에 이은 조선시대의 風水的 裨補가 대표적으로, 이때 불교와 풍수는 각각 경관변화를 초래하는 文化變數가 된다. 불교와 풍수는 각각 佛國土地理觀과 明堂吉地觀이라는 理想鄉 관념에 기초하고 있으며, 비보는 이를 이루기 위한 수단과 방법으로 강구된다. 불교적인 비보에는 寺, 塔, 佛像, 幢竿 등이 수단으로 활용되었고, 풍수적인 비보에는 造山, 畚, 木, 象徵物 등이 주요 수단으로 이용되었다.

2) 비보풍수의 개념과 구성

비보풍수는 비보의 역사적이고 具體的인 실천 형태이자, 풍수와 비보가 融合한 발전적 개념이다. 비보풍수는 自然價値를 중시하는 풍수와, 비보의 自然補合의 인문가치를 相補的으로 結合하여 再構成된 文化融合으로서²⁰⁾, 그것은 자연의 完結의 인 조화를 지향한다.

風水의 裨補는 자연환경의 構成에 부족함이 있을 때 人爲的 環境을 構築하여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것으로²¹⁾ 風水의 調和(the geomantic harmony)를 이루기 위해 자연을 變形할 수 있으며²²⁾ 구체적으로는 地形을 補修하고 風水를 改良하는 형태로 나타난다. 또한 비보풍수는 현실적인 풍수적 방책으로서 특히 厭勝은 도읍풍수에서 필수적인 것이었으니, 도읍을 위시한 集團陽基의 풍수적 조건이 凶하더라도 移轉하기 어려워 人爲적으로 厭勝하는 방법이 강구되었던 것이다.²³⁾ 중국에서도 風水의 裨補가 성행하였는데 “도읍과 고을과 계곡의 풍수를 修正할 목적으로 全帝國에 걸쳐서 많은 수의 비보답이 세워졌으며 여기에는 엄청난 비용과 노동력이 들었다”고 한다.²⁴⁾ 이러한 풍수적 비보 사실은 各府縣城의 地方志 中에도 다수 기록되어 있다.²⁵⁾ 후술하겠지만 중국의 風水의 裨補 역시 原理·形態·機能上 한국의 것과 大同小異하다.²⁶⁾ 요컨대 풍수적 비보는 풍수적 환경에 부족함이 있을 때 人文的 環境을 相補함으로써 風水의 調和를 이루고 改良함을 목적으로 한다.

風水史에서 볼 때 初期的 風水의 개념범주는 비보를 內包하고 있었다. 『錦囊經』에서 “(氣를) 흩어지지 않게 하고 머물게 하고자 하니 이를 일러 풍수라고 한다 (古人 聚之使不散 行之使有止 故謂之風水)²⁷⁾”라고 한 定義에서 보나 “사람의 노력을 갖추어서~높일 곳은 높이고 낮출 곳은 낮춰라(工力之具~增高益下)”라는 구절에서 보듯이 당시의 풍수는 비보를 포함한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개념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以後 풍수론의 道家의 屬性上 自然價値에 치중하고 自然價値가 集中된(氣가 모인) 장소가 어딘지를 찾는 擇地論이 盛行하였으며 상대적으로 人爲的으로 氣를 모이게 하는 裨補的 논의는 그 역할 및 비중과 의미가 縮小되었다. 그러나 실제 취락에서는 비보법이 매우 넓고 광범위하게 활용되어 기능하였으며, 특히 한국적 현실에서는 비보가 널리 확산되었으니 이는 傳統的으로 겨레사상에서는 相補的인 均衡 감각이 뚜렷하였을 뿐만 아니라 巫敎와 佛敎의 人本的 自然觀의 영향에 힘입어 중국에서 受容된 風水論의 自然偏向을 地人中道의 均衡 상태로

맞추는 思想的 丈대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裨補風水論은 風水의 山·水·方位에 文化 要素를 더하여 4자의 相互組合으로 구성된다.²⁸⁾ 곧 비보풍수론은 기존 풍수의 山·水·方位로 대별되는 자연적 요소뿐만 아니라 신앙, 상징, 조경, 놀이 등의 문화적 요소가 복합되어 재구성된 것이다.

한국풍수의 구성체계는 크게 相地論(혹은 擇地論)과 裨補論을 이룬다. 이병도도 지적했듯이, 한국풍수의 宗을 이루는 道說의 風水에 의하면 地理(山水)에는 곳에 따라 衰旺이 있고 順逆이 있으므로 旺處·順處를 택하여 거주할 것과 衰處·逆處를 인공적으로 혹은 佛力(寺塔)으로 裨補·鎮壓할 것을 唱導하였던 것이다.²⁹⁾ 여기서 택지론이란 明堂吉地가 어딘 지를 감별하고 찾는 논리체계로서 看龍法, 藏風法, 得水法, 定穴法, 坐向論, 形局論의 체계로 구성되고, 비보론은 지리적 조건의 欠缺을 補完하고 適地로 조성하는 논리체계로서 필자는 이를 龍脈裨補法, 藏風裨補法 및 水口裨補法, 得水裨補法, 形局裨補法, 凶相遮蔽法, 火氣防禦法 등으로 命名하고자 한다. 이상의 논의를 정리하면 아래의 그림과 같다.

風 水 論	
擇 地 論	裨 補 論
看 龍 法	龍 脈 裨 補
藏 風 法	藏 風 裨 補
得 水 法	得 水 裨 補
形 局 論	形 局 裨 補
定 穴 法	凶 相 遮 蔽
坐 向 論	火 氣 防 禦

〈그림〉 韓國風水論의 構成體系

풍수를 擇地論과 裨補論으로 구분할 때, 택지론이 立地의 성격이 뚜렷한 理論風水라면, 비보론은 造景의인 應用風水라고 할 수 있으며 주민들이 주거생활에서 현지의 환경적 특성에 적합하도록 풍수를 能動的으로 활용한 生活風水였다. 비보풍수론 중에 대표적인 용맥비보, 장풍비보, 득수비보, 형국비보를 풍수 원전인 『靑鳥經』, 『錦囊經』에 근거하여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龍脈裨補란 명당을 이루는 龍脈[主脈]의 形勢와 氣運을 조정하여 적정 상태로 맞추는 것으로써, '山來하지 않고 山囚하거나 山頓하지 않고 山走할 경우'³⁰⁾, '童山, 斷山, 石山, 過山, 獨山, 逼山, 側山일 경우'³¹⁾ '山氣가 衰하였을 경우'가 비보의

대상이 되는데, 이럴 때 補土·造山하거나 숲을 조성하여 生氣를 복돋고 이상적인 상태로 맞춘다. 특히 山氣가 衰하였거나 童山일 경우는 소나무를 植木하여 生氣를 培養하였다. “生氣는 陰陽이 沖和하고 초목이 울창·무성해야 있는 법(沖陽和陰 草木鬱茂 乃有生氣)³²⁾”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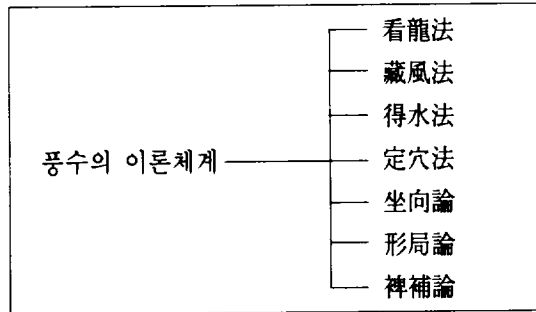
藏風裨補는 풍수상 藏風의 조건을 보완하는 것이다. 『靑鳥經』에서 말한 바 이상적 지형[福厚之地]은 ‘四合周顧’라 하여 주위 사방의 산수가 두루 감싸인 듯하여야 한다고 하였고, 그 註文에 “四合周顧란 좌우전후에 비거나 빠진 것이 없음을 말한다”³³⁾고 하였다. 이는 풍수에서 말하는 明基의 조건을 말한 것으로서, 만약 이러한 조건이 충족되지 못한 지형에서는 장풍비보가 요청되는 것이다. 그리고 ‘龍虎가 去할 경우 반드시 머리를 돌려야 하나 쪽 빠져나가 잠그지 않을 경우’³⁴⁾도 비보의 대상이 되는데, 이는 명당을 중심으로 한 좌우의 지세가 주거지를 감싸안지 못하고 벌어졌거나 빠지는 형세이기 때문이다. 장풍비보 역시 주로 숲이나 조산이 활용된다.

得水裨補는 基地의 自然水 흐름을 풍수상 適正 조건으로 조정·보완하는 비보법으로서, 풍수의 得水 조건은 일반적으로 ‘水回’하거나 ‘水曲’하여야吉하다고 하며, 혹은 “前水의 法은 매번 굴절할 때 고였다가 빠져나가야 하며(法每一折而後泄)” “나를 돌아보면서 머물고자 하여야(顧我欲留)”³⁵⁾하나 반대로 ‘水流’하거나 ‘水直’하면凶한 경우가 되니³⁶⁾ 이럴 때 修正補完策으로서 流路를 둥글게 파서 水가 주거지를 감돌아 흘러 나가도록[水回] 한다든지, 혹은 못을 파서 물이 고였다 흐르도록 한다든지 숲을 조성하여 곧장 빠져나가는 물을 우회시키는 비보법이 일반적으로 쓰였다. 지형적 조건에 따라 水路가 基地와 主山 사이를 가르면서 흐른 경우[大邱府의 사례]에 流路를 變更하여 基地를 둘러 흐르도록 하였다.

形局裨補는 지형의 형국 체계에 保合되는 장치를 하는 것으로서 예컨대 行舟形局 상 “배의 노[楫]는 앞에 넷물을 얻어야 한다”³⁷⁾고 했듯이 못을 파거나, 돛대를 세우는 방책이 있다. 봉황 형국에 오동나무·대나무를 심는 것도 널리 행해진 형국비보법이다.

이상에서 개괄적으로 살펴보았지만 비보법은 風水論에서 중요한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한국풍수의 이론체계에서는 속하지 않았다. 곧 村山智順은 풍수의 구성을 山, 水, 方位의 3요소로, 풍수의 법술을 看龍法, 藏風法, 得水法, 占穴法으로 나누고, 비보는 다만 기존 풍수법술에서 인위적으로 吉局을 만드는 데까지 발전한 것이라는 정도의 의의를 부여하였으며³⁸⁾ 최창조의 한국 풍수이론 체계 구성에서도

비보법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³⁹⁾ 그러나 筆者의 연구 경험을 정리해 보건대 비보론은 한국풍수의 이론 체계에 간룡법, 장풍법 등과 함께 마땅히 포함되어 구성요소가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한다. 이에 필자는 기존의 풍수론 체계를 새로이 보완하여 아래의 그림과 같은 再構成을 시도하였다<그림>.



<그림> 風水 理論體系의 再構成

3. 한국 비보풍수의 사상사적 기원과 역사적 변천

1) 한국 비보사상의 기원과 계통

한국 비보지리설의 起源을 이루는 사상적 思潮에는 세 줄기의 흐름이 있었다. 그 하나는 古代的 巫敎에서 비롯하여 山川崇拜 觀念, 仙道로 이어지는 固有의 傳來思想의 줄기이고, 또 한 흐름은 중국에서 유입된 道敎·陰陽五行說·風水說·讖緯說이며, 나머지 한 줄기는 인도로부터 중국을 거쳐 들어온 불교의 密敎信仰(舍利塔信仰·藥師信仰)과 禪이다. 그런데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사상적 계통상 다시 仙思想으로 묶을 수 있으니, 한국비보설의 기원적 사상은 크게 仙과 佛로 나뉜다. 이 두 사상은 신라말 道說에 의해 일차적으로 합쳐져 '禪補寺塔說'로 정립되었던 바, 이로써 한국비보설의 시원은 仙佛融合의 계통으로 규정된다<그림>.

所屬	裨補思想의 構成	裨補思想의 系統	
韓國思想	巫教·山川崇拜·仙道	仙(道)	仙佛融合
中國思想	道教·陰陽五行說·風水說·讖緯說		
印度思想	密教(舍利塔信仰·藥師信仰)·禪	佛	

〈그림〉 韓國裨補思想의 構成과 系統

한국의 전통사상과 문화의 뿌리가 그러하듯이 비보적 관념 역시 根底에는 巫教가 原初를 이루고 있다. 샤머니즘은 자연과 인간의 운명을 지배한다고 믿는 초자연적인 신령과의 교섭을 통해 자연과 인생의 禍福運命을 조절하려는 呪術的 종교 현상이다. 원시 민족들에게는 어떤 靈力이 있음을 믿고 약한 힘을 강하게 하는 借力信仰 및 呪符信仰이 있었는데 이러한 신앙이 비보신앙으로서 토지의 힘을 증가시키는 일에 응용된 것이 비보관념의 發端이 되었다.⁴⁰⁾ 巫教는 한국문화의 地核으로서, 풍수사상은 在來의 巫教의 바탕 위에 수용되었으니 그 바탕을 이루고 있는 것은 讓災招福의 巫教의 사상이었다.⁴¹⁾ 한국의 도선에 의해 크게 선양되기 시작한 풍수설은 陰陽, 地理, 讖緯의 혼합사상이자, 도교의 山川諸神에 대한 신앙과 불교의 諸神 신앙과 巫教의 山川信仰을 혼합한 종교적 사상이었던 것이다.⁴²⁾

고대의 巫教的인 비보적 관념은 神話나 信仰의 영역에서 표출되었고 이후 산천 비보의 양상으로 발전하였다. 특히 삼국시대에 와서는 祭儀 대상으로서의 산천의 位置와 位階가 지리적으로 체계화되었으니 이는 지리적인 지식의 증대와 병행된 것이었다.

최초 巫教의 對自然的 비보의 관념이 드러난 것으로서, 환인이 환웅에게 弘益人間하라고 준 3개의 '天符印'은 自然界를 다스릴 수 있는 기능을 포함한 비보적 神物로 해석되며, 역시 "桓雄이 風伯, 雨師, 雲師를 거느리고 곡식, 수명, 질병, 형벌, 선악 등 무릇 인간의 360여 가지 일을 맡아서 다스리고 教化하였다"⁴³⁾고 하였으니, 이러한 風伯, 雨師, 雲師는 自然界를 統御하는 神的 기능을 상징하는 것이다. 그리고 신라 神文王代(681-692)의 萬波息笛도 이것을 불면 "가물 때에는 비가 오고 비가 올 때는 맑아지고 바람은 가라앉고 물결은 평온하였다"고 한 것으로 보아 자연을 다스리는 비보적 神物이었음을 알 수 있다.⁴⁴⁾ 뿐만 아니라 삼국시대에 지낸 山川祭 등의 자연신앙은 자연재해를 방지하기 위한 비보적인 성격과 기능의 祭儀로서 특히 壓丘祭, 氣祭는 水災 旱災를 방지하기 위한 제사의식이었으며, "三

山·五岳 이하 名山大川을 나누어 大·中·小祀를 지냈다”⁶⁵⁾는 것에 이르러서는 自然信仰的인 비보관념에서 구체화하여 산천의 지리적인 인식에 기초한 山川裨補로의 발전을 예상케 하는 것으로서 地理的 認知力의 확대를 反證한다.

巫敎와 자연신앙의 비보적 관념은 仙道의 비보적 관념으로 발전되는데, 그 과정에서 중국에서 들어온 도교의 山川鎮壓法 영향을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三國遺事』에는 7세기 중엽에 고구려의 요청으로 唐太宗이 파견한 8명의 道士들이 국내의 산천을 鎮壓했다는 다음과 같은 史實이 기록되어 있다.

왕이 당에 도교를 구하였다. 당 태종이 도사 숙달 등 8인을 보내었다. 왕이 기뻐하여 사찰을 道 으로 삼고 도사를 높혀 儒士 위에 처하게 하였다. 도사 등이 국내에 돌아다니며 유명한 산천을 진압할 때 옛 평양성의 勢는 新月城이라하여 도사 등이 南河龍을 명하여 거기에 滿月城을 加築하여 龍堰城이라 이름하고, 讖을 지어 龍堰塔 혹은 千年寶藏塔라 하였다. 또는 靈石을 파 깨뜨렸다 한다.⁶⁶⁾

위 인용문에서 보듯이 중국의 道士들은 山川 鎮壓術을 쓰고 있는데 이는 자연에 대한 술법적 제어 특히 厭勝法을 기조로 하는 중국 도교의 비보행태를 표현한 것이다. ‘평양성의 형세를 초생달 형국으로 보았다’는 내용에서는 땅의 형세로吉凶을 보는 지리관념이 보이고, ‘城을 加築하여 보름달 형국으로 고쳤다’는 내용은 건축물의 조성을 통한 裨補法術의 활용을 뜻하며, ‘靈石을 파서 깨뜨렸다’는 표현에서는 鎮壓術法의 사용이 암시되고 있다. 또한 중국의 도사들이 ‘讖을 지었다’는 기록에서는 鎮壓術과 讖의 결합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것은 고려시대에 성행하였던 비보도참 사상과도 맥이 닿고 있다.

道敎는 원래부터 풍수와 특별한 관계를 맺고 있으니 둘은 自然의 ‘生氣’에 대해 강렬한 지향성을 지닌다.⁶⁷⁾ 도교와 풍수는 모두 자연은 살아 있는 유기체로 보며 자연의 숨[氣]이 모든 것에 충만하여 천지의 다양한 조건을 만든다고 인식한다. 道란 자연의 바꿀 수 없는 길(the unalterable Course of Nature)이며, 자연의 신비한 영향에 대한 畏敬은 道敎라는 고대적인 종교체계의 원리가 되었다.⁶⁸⁾ 풍수 경전의 하나인 『宅經』은 도교경전을 집대성한 『道藏』에 수록되어 있으며, 풍수의 四神沙로 표현되는 청룡·백호·주작·현무의 四靈은 도교의 보호신이기도 하다.⁶⁹⁾

이상을 근거로 볼 때 한국의 裨補史는 7세기 중엽에 당시 중국에서 들어 온 도교의 山川鎮壓術과 도참의 영향을 받았음을 알 수 있는데, 이것은 나중에 한국적

地理裨補와 讖이 결합된 裨補圖讖에로의 진전에 문화적 영향력이 되었음을 추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한국비보설의 시조로서 역사적으로 평가받았던 道誥의 비문에서도 “(도선은) 음양 오행의 술법을 연구하여 비록 金壇과 玉笈의 심오한 秘訣일지라도 모두 가슴속에 각인해 두었다”⁵⁰⁾는 음양오행설과 도교적 秘記의 습득 내용과 관련해서도 傍證된다.

한국비보설의 仙道의 淵源을 탐색함에 있어서 또 하나의 주목할 만한 사실은, 道誥에게 山川順逆의 地理法을 傳授해 준 지리산 異人의 사상적 계통이 傳來의 仙道로 판단된다는 것이다.⁵¹⁾ 옛부터 우리나라 사람들은 道術이 있고 秘訣을 말하는 사람을 異人이라고 일컫고 方術을 하는 사람을 仙道하는 사람이라고 하였다.⁵²⁾ 도선의 비문에는 異人의 言行에 관하여, “세상을 멀리하고 지리산의 깊은 곳에 산지가 수백 년이 되었다”거나, 도선을 만나고 헤어지는 과정에서 신비스런 행태가 기록되어 있으니 이로써 이인이 선도의 계통임을 알 수 있고, 비문 「陰記」의 ‘神人’이라는 표현에서도 짐작이 가능하다. 도선의 「先覺國師教書及官誥」에서 또한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도선은) 그윽하고 미묘함이 이미 부처의 경지에 다다랐고 나머지로 더욱 陰陽에 精通하였다. 비밀스러운 술법을 장차 전수 받으려 하매, 홀연히 어떤 異人이 찾아와 壼자 六通이 장애되지 않으니, 大地를 묘하게 보아서 빠짐이 없었다”는 것이다.⁵³⁾ 도선이 異人을 만난 智異山은 옛부터 仙道의 중심이 되는 산으로서 道教의 理想鄉인 三神山 중의 方丈山으로 일컬었고 地誌에는 太乙真人이 살고 여러 신선이 모이는 곳이라 하였다.⁵⁴⁾ 그밖에도 한국 仙道의 맥을 기록한 『靑鶴集』(1627)에서도 도선이 勿稽者⁵⁵⁾라는 仙人의 餘韻을 띠고 있다는 기록과⁵⁶⁾ 조선 문종 1년에 鄭安宗이 道誥類의 비보설에 대해, “산천이 험하면 땅의 정기가 惡하므로 道誥이 말하기를 地脈에 靜力이 없어서 動함이 많으니 靜하면 裨補하고 動하면 禳鎮한다 하였습시다. 禳鎮·裨補하여 和氣를 順合함은 옛 神仙이 남긴 자취입니다”⁵⁷⁾라고 말한 사실도 비보설의 仙道思想的 계통을 위치짓는데 참고가 되는 말이다.

仙道와 함께 한국 비보사상의 기원을 이루고 있는 兩大 요소는 불교적인 비보 신앙이다. 불교적 비보사상에 관해서는 사리탑 신앙과 약사신앙, 그리고 밀교와 禪思想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요컨대, 한국의 비보사상의 始原은 巫敎의 讓災招福 관념에서 비롯하여 산천승배로 표현된 비보적인 자연신앙을 거치고, 도교의 山川鎮壓法과 相地術 및 讖을 흡수하였으며, 仙道의 비보관념, 그리고 불교사상으로서 사리탑신앙으로 대표되는

密敎의 비보사상과 藥師信仰·佛國土思想·禪思想 등의 물줄기가 합쳐져서 이루어진 것으로, 그 사상적 系譜는 仙佛融合의 系統으로 규정할 수 있다.

2) 한국 비보풍수의 역사적 변천과정

비보설의 始原은 巫敎로 거슬러 올라가나 역사상 본격적인 출발은 불교적 비보로서 한반도에서는 가야불교 초기에 첫 모습이 보이지만 비보설의 체계가 잡히기 시작한 시기는 7세기 경 신라시대부터이다. 新羅下代 이후 풍수가 강력한 공간적 이데올로기로 자리잡으면서 불교는 풍수와 교섭하였으며⁹⁰⁾ 이에 따라 불교적 비보는 풍수와 결합하여 風水寺塔이 출현하였다. 풍수 역시 風水的 調和의 增強이나 缺點의 補完을 위해 탑이나 사찰을 짓는 등의 佛家的 影響을 수용한 것이다.⁹¹⁾ 이윽고 풍수설의 성행으로 기존의 불교적 비보는 풍수적 비보와 兩立되거나 혹은 풍수적 비보로 代替되어 나가며, 급기야 풍수적 비보가 불교적 비보를 흡수하게 된다.⁹²⁾ 조선 초기까지 이어지던 풍수지리적 이데올로기는 儒學的 社會思想으로 대체되면서 조선왕조의 경우 15세기 무렵부터 衰落의 길을 걷게 되었다. 이에 한국의 裨補史를 시기 구분하면, 삼국 및 통일신라시대의 佛敎裨補期, 신라말 이후 고려시대의 佛敎 및 風水 裨補의 結合 및 兩立期, 조선시대의 風水的 裨補期로 구분될 수 있다.

통일신라시대에는 불교적 鎮護信仰에 의거한 寺塔裨補가 王都인 경주를 중심으로 행해졌으며, 나말려초에는 풍수사상의 성행과 지방호족의 得勢로 말미암아 風水的 動機에 의한 裨補寺塔이 地方 要處에 설치되었다. 비보사탑의 형태상 前者를 鎮護寺塔이라고 하고, 後者를 風水寺塔이라고 한다.

『三國遺事』所在의 鎮護寺塔로는 신라의 황룡사구층탑·용장사삼층석탑·사천왕사·감은사와 가야의 파사석탑·왕후사 등이 있으며, 풍수사탑으로의 漸移의 과정의 位相을 지닌 鎮護寺塔로는 천룡사와 만어사가 있다. 鎮護寺塔은 그 기능상 자연재해의 방지와 왕경수호, 外侵으로 인한 국토방어 등을 목적으로 조성한 호국사탑으로서, 왕경의 중심부에 입지하거나 지리적 혹은 전략적인 요충지에 입지하고 있다. 한편 풍수적 비보사탑은 풍수적 환경해석에 기초하여 풍수적 비보 혹은 진압을 목적으로 조성한 사탑이다.

나말려초에 이르러 풍수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비보설이 호족세력에 의해 수용되며 불교의 선종이 지방으로 확산됨과 아울러 기존의 왕도에 설치되었던 鎮護

寺塔 이외에도 전국의 각 지방에 풍수적 비보사탑이 창건되기에 이르렀다. 문화간의 접촉은 문화요소의 전달을 수반하며 새롭게 등장하는 요소는 기존의 문화요소와 상호작용하는 과정에서 문화변동을 유발하는데 기존의 불교적 비보 양식은 풍수문화와 상호작용하면서 풍수탑이라는 복합양식을 창출하는 것이다. 신라 말에 이르면 이전과는 달리 풍수지리설의 내용과 보유계층이 변화하고, 풍수가 지방으로 전파되었으며, 경주 중심의 名勝 개념이 변방지역까지 확대되어 전국적으로 새로운 명승지들과 비보사탑이 탄생되었다. 문경 봉암사, 구례 실상사 등의 九山禪門 관련 사찰이 그러한 예가 된다.⁶¹⁾ 따라서 초기의 비보사탑은 九山禪門의 세력 확장과 대응될 것으로 추정된다. 비보설은 철학적 균형원리에 기초하고 있으므로, 周邊部 地方의 발전이 中心地 國都의 발전과 긴밀한 연관이 있고 또한 並行되어야 한다는 國土均衡發展의 사회사상과 논리로 발전할 수 있었고 이러한 가능성은 곧바로 호족세력에 의해 수용되어 전환기의 사회변혁사상으로 기능할 수 있었다. 이에 9세기에는 지방 호족들에 의해 조성된 비보사탑이 각 고을에 들어섰다.

고려 왕조는 불교의 佛力과 풍수의 地力 이데올로기로서 국가의 안녕을 기원하고 정책 운영의 기초로 삼았다. 왕건 태조가 후삼국을 통일한 후 도선의 비보사탑설은 한편으로는 왕권 집중 및 호족 統御를 위한 이념으로 활용되어 지방의 사원을 통할하는 이념적 장치가 되고, 한편으로는 왕도인 개경을 보위하는 도성계획안으로 활용되는 것이다. 이에 태조는 5大寺 10大寺 등의 國家禪補所를 개성에 설치하고⁶²⁾ 풍수상의 비보가 필요한 지점에 사탑을 배치하였으니 開國寺, 演福寺, 聖燈庵, 觀音窟 등은 그 대표적인 풍수사찰이다. 특히 태조는 도선의 山水順逆法 내지 사탑비보설을 응용하여 개경의 도성 내에 開國寺 외에도 廣明寺, 日月寺, 龜山寺, 興國寺, 普濟寺 등을 건설하여 개경의 취약한 지리적 조건을 비보하고자 하였다. 이후 풍수론이 도성의 지리적 운용 및 관리론으로 점차 자리를 굳힘에 따라 풍수적 비보가 시행되었는데 송악 主山의 소나무를 보전하기 위해 소나무를 심거나 송충이를 잡기도 하였고, 도성의 허결한 부위에 堤防을 수축하기도 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풍수적 비보책은 佛力 비보에서 풍수적으로 한 걸음 進展된 형태로서의 의의가 있다. 이윽고 神宗 元年(1197)에는 ‘山川禪補都監’이라는 비보 관청이 설치되어 12년 동안 운영되면서 국내 곳곳에 造山·築墩하여 壓勝하는 등⁶³⁾ 국토관리를 하였으니 이는 기존의 사탑비보를 주관하던 禪補所 보다 기능적 범위가 확대된 것이었다. 『高麗史』에 의하면, “宰樞와 重房의 관원들과 崔忠獻 등이 術士 등을 모아서 國內의 山川을 비보하여 나라의 基業을 연장시키는 문제를 토의하게

하였고, 드디어 도감을 설치하였다”고 했다.⁶⁴⁾

그러나 고려의 비보사탑은 이미 11세기 중반부터 사찰의 과다한 창건으로 인한 재정 악화를 야기시켰고 12세기 말에는 최충헌이 재상들의 원당을 철폐할 것을 건의하며 『도선밀기』에 기록된 사찰 이외에는 寺社田과 柴地를 지급하지 않았다.⁶⁵⁾ 마침내 고려 말의 공민왕대에 이르면 많은 비보사찰들이 허물어지고 빈터만 남아 있어 왕은 重修를 교서한 바 있다.⁶⁶⁾ 조선조에 와서는 억불정책으로 말미암아 기존의 비보사탑 마저도 축소 혹은 혁파되었다. 태종 2년에 비보사찰이라도 常住僧 1백 명 以下로 『道誥密記』에 있지 않는 사찰은 혁파할 것을 상언하고 있고, 태종 6년(1406)에 이르면, 『道誥密記』에 소속된 사찰이라도 田地와 奴婢를 新都의 各寺로 옮기게 조치하였다. 현재의 비보사찰은 고려조에 창건되어 개성을 비보하고 있는 것이지 한양을 비보한 것은 아니라는 논리였다. 이어 태종 8년에는 비보사찰의 노비수를 30구로 대폭 축소하였고, 조선의 성종대를 지나면서 도선의 사탑 비보설은 급속히 쇠퇴하였다. 조선의 유신들의 비보설에 대한 비판도 거세어 졌으며, 사탑비보설은 조정에서 강력히 부정되었다. 사탑비보설은 고려 말부터 衰退하기 시작하여 조선조 이후 排佛 정책의 기조와 함께 불교신앙적 기능은 없어지고 비보적 기능만 남거나 이것도 점차 풍수적 비보로 대체 되었으며 고려의 도선비보설은 드디어 15세기 말에는 종언을 고하게 되었다. 성종 16년(1486)에 “지금 도선이 비보했던 시설이 허물어지고 철거되어 거의 다하였다”⁶⁷⁾는 말에서나, 당시 도선의 비보술을 장려하자는 내용으로 상소한 최호원이 유신들의 강력한 반발로 유배되고 마는 조정의 분위기가 그것을 말해 준다. 이러한 비보사탑의 쇠퇴는 불교적 信仰裨補의 관념에서 풍수의 地力裨補의 관념으로 사상적이거나 실제적인 무게중심이 옮겨오는 과정이기도 하는데, 이는 神力에 의하여 행복을 얻겠다는 기존의 관념에서 生氣있는 것에서 번영을 이루겠다는 理論的·人爲的인 사고방식에 이끌려 神力信仰보다 地力信仰으로 變遷하였던 것이다.⁶⁸⁾

조선 개국 후 한양의 환경계획 및 구성에는 풍수적 비보가 주요하게 적용되었으나, 이는 고려의 불교적 비보 위주의 정책과는 차별되는 점이었다. 조선조에 불교적 비보는 내리 衰退一路를 걷고 있었으나 風水의 裨補는 중요한 환경구성 원리로 수용되었던 것이다. 지리적 비보술은 세종, 문종, 성종대에 활발히 행해지고 있다. 朝鮮朝는 궁궐에 이르는 主山の 來脈과 도성의 藏風の 조건을 비보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며, 조선조 主脈 비보의 경우, 고려 개경에서 主山인 송악에 限定하여 소나무를 심고 송충이를 잡는 등의 집중적인 노력을 한 主山裨補의

개념에 비해 풍수론적으로 심화·발전된 형태이며, 비보의 환경적 범위도 대폭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主脈裨補는 세종 조부터 본격적으로 거론되고 있는데 그 형태도 主脈에 대한 補土, 植松, 伐採 및 伐石 禁止 등으로 다양화되었다. 藏風비보를 보더라도, 고려의 개경에서는 문종 7년(1053)에 도읍의 허결한 지세를 補虛하기 위해 언덕의 제방을 축조한 사실이 있지만⁶⁹⁾ 한양의 경우는 왕경의 청룡·백호 山勢에 대한 補虛에 매우 치중하고 있다. 그밖에도 도성 주위로 일정 범위의 산을 보전하여 도성의 山氣를 배양코자 하였으니 이 역시 비보환경의 폭이 확대된 것으로서 개경의 경우 찾아보기 어렵다. 또한 得水 비보에 있어 한양에서는 고려조 개경의 불교적 비보 양식과는 달리 풍수적인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고 있다. 주요한 비보적 논의로서는 경복궁 터의 水量 부족, 明堂水 淨化, 수구 비보 등으로 요약된다. 그리고 왕도의 水口를 補虛하기 위해 假山을 조성하였다. 이렇듯 조선의 국도인 한양에서 행해진 풍수적 비보는 고려의 개성과 비교해 볼 때 훨씬 다양화되고 정교한 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공간적 범위가 확장된 것이었다.

조선조의 비보풍수론은 성종 대에 이르자 퇴조의 기색이 완연하였다. 儒臣들의 비보설에 대한 비판도 거세어져 조선 문종 대 鄭安宗의 상언 중에, “지금에 있어서는 풍수라는 것이 오직 무덤을 얹히고 집을 세우는 것만을 일삼을 뿐이고, 산천의 國脈을 양진·비보하는 술법으로 쓰임을 듣지 못한다”고 하였으니 당시에는 음택 혹은 양택풍수가 일반화되어 있고 비보풍수술은 활용되지 못하고 있음을 나타낸 것이다.

4. 한국 풍수비보의 形態와 機能

비보의 형태와 기능은 共時的으로 장소나 조성 주체에 따라 적절히 채택되나, 通時的으로는 신앙적 비보에서 합리적 비보로 발전하는 문화적 進化(cultural evolution) 과정을 보인다. 住民들은 자연환경에 대한 비보적 장치와 경로를 통하여 자연환경의 주거조건을 개선할 수 있고, 環境認知에서 誘發된 불안 요소를 해결할 수 있는 메커니즘이 마련되며, 특히 集團心理적으로 한 집단의 認知環境上에 心理的 不安 요인이 있을 경우에 비보는 이를 적절히 해소하여 그 집단의 환경심리적인 안정과 조화를 이끄는 문화적 장치가 된다.

비보 형태는 時代·地域(場所)·造成主體(集團) 別에 따라 특성이 있지만 역사적으로 “사찰이나 탑, 못과 숲”⁷⁰⁾이 일반적이었고, 고을에서는 造山이나 種樹가 대표적인 비보수단이었다.⁷¹⁾ 조성 주체에 따른 특징으로, 사탑은 주로 왕실이나 大邑의 비보형태였는데 이는 비보사찰의 조성 및 운영에 많은 경제적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반면에 적은 비용으로 실질적인 비보효과를 거둘 수 있는 숲 비보는 中小邑이나 마을에서 많이 나타나며, 특히 손쉽게 조성하여 신속하고 상징적 비보효과를 얻을 수 있는 조산은 마을의 대표적인 비보 형태였다.⁷²⁾

비보 양식 중에서 불교적 비보수단의 發生과 變遷 過程을 개관하여 보자. 통일신라기의 鎮護寺塔은 本格的이고 初期的의 비보 형태로서 고려조에 걸쳐 널리 활용되었다. 진호사탑은 신라 말 이후 고려조에 들어와서 風水와 복합되면서 風水寺塔으로 그 성격과 형태가 바뀌었다. 조선조에 이르러서는 抑佛 정책으로 말미암아 불교가 衰微하여지자 불교적인 양식의 사탑비보는 쇠퇴하고 造山·林藪 裨補가 점차 그것에 대신하여 행해졌다.⁷³⁾ 한편 민간에서는 민속신앙과 결합하여 造山, 장승, 솟대, 性石, 堂木 등 민간신앙물들이 비보기능을 새로이 담당하기도 했으며, 기존의 왕실이나 大邑에 주로 설치되었던 風水塔은 略化된 양식의 비보들탑으로 變容하여 民俗化되었다.⁷⁴⁾ 불교적 비보수단이 변모하는 양상을 살필 수 있는 一例로서 石幢竿을 들 수 있는데, 석당간은 원래 사찰의 標識物이었으나 이후 풍수적 비보물로 轉用되었으니, 조선조에 들어와 고을에서는 石竿柱로, 마을에서는 立石·짐대로 변모하였던 것이다.⁷⁵⁾ 이처럼 불교적 양식에서 출발한 비보수단은 점차 불교의 사회적 退潮와 함께 신앙성은 脫殼되고 비보 기능만 유지된 채 簡略化되거나 아니면 민속신앙물이나 古代 유적물(선돌, 고인돌, 古墳 등)로 代替된다.

그러면 대표적인 비보형태로서 비보사탑·비보조형물·조산·숲, 못을 들어 각각의 형태와 기능, 기원, 명칭 등을 일반화하여 개관해 보기로 하자.

비보사탑은 한국 裨補史의 初期的의 비보형태로서 道說의 裨補寺塔說에 이론적 根據를 두고 있다. 비보사탑의 구성요소에는 佛像, 塔, 幢竿 등이 있는데, 불상은 鐵佛과 藥師如來像, 彌勒像이 비보에 주로 쓰였고, 그 중 비보 鐵佛은 신라 말 九山門 관련 禪刹에 일부 나타난다. 호남지방의 경우 고려 말기 이후에는 미륵불이 邑治風水 차원에서 수구막이로 세워졌고, 조선후기에는 미륵신앙물이 마을 비보에도 활용되었다.⁷⁶⁾ 비보적 기능의 탑은 형태상 자연석을 기반으로 삼은 異型石塔이 많고 경우에 따라서는 비보적 文樣으로서 四天王像이나 十二支神像이 標識되기도 한다. 특히 당간은 行舟形局의 보완물로서 쓰이곤 했는데, 주로 行舟形局에서 갖

취야 할 듯대로 상징인식되었다. 비보사탑의 기능은 세분하여 水勢비보, 地勢비보로 나눌 수 있는데, 水勢 비보는 사탑을 설치함으로써 물로 인한 자연재해를 막고자 의도한 것으로, 다시 이것은 江水비보, 海波비보, 逆水비보, 水口비보 등의 기능을 한 사례가 있고, 地勢禪補法은 사탑을 설치함으로써 地德을 비보하자는 것으로, 形局비보, 凶相비보, 山勢비보 등의 실례가 있다.⁷⁷⁾

비보적 상징조형물에는 장생표, 선돌, 솟대[진대 혹은 짐대], 장승, 남근석, 돌거북, 돌자라 등의 형태가 있으며 이것들은 주로 취락비보에 활용되었다. 또한 상징의례의 한 형태로서 火氣防禦를 위한 민속신앙적 간물(海水)비보가 있다. 이러한 간물신앙은 풍수적 못비보의 원형적 형태로 추정된다. 장승류의 기능은 마을 守護, 방위 守護, 산천비보, 읍락비보, 佛法 守護, 경계표, 路標, 성문수호, 祈子 등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비보장승은 마을 수호, 방위 수호, 산천비보, 고을 비보의 역할을 한다.⁷⁸⁾ 비보 장승의 기원은 고려 초 사찰의 四方 山川을 비보하기 위하여 세운 長生標로 추정되며 이러한 산천비보 長生標가 차츰 民間化하면서 邪의 鬼面을 조각한 邑落禪補 장승이 나타난다.⁷⁹⁾ 솟대는 그 기원이 고대적 신앙물이나 지역에 따라 풍수적 비보수단으로 轉用되기도 하였는데, 행주형국의 지세에 듯대로 활용된 경우가 많으며, 곳에 따라서는 솟대 위에 얹힌 오리가 火氣를 막는 역할을 하기도 하였다. 제주도에는 補虛·防邪의 기능을 하는 솟대(거옥대)가 있다.⁸⁰⁾

비보 조산은 흙, 돌, 숲(나무)을 산 모양으로 造成하여 空缺한 데를 메움으로서 補虛 效果를 얻는 비보 유형으로서 흙무지, 돌무지(돌탑), 조산숲이 대표적인 형태이며, 그 중 조산숲은 思想的 계통상 樹木信仰과 風水地理가 融合된 것이다. 비보 조산은 조산 중에서 풍수적 비보기능을 담당하는 조산을 일컬으며, 그것은 마을의 신앙 및 풍수적 비보의 구조물로서 일반적으로 갖춰진 전통촌락의 경관요소였다.⁸¹⁾ 비보조산의 명칭은 지역에 따라 탑·補虛山·(石)假山·造山藪⁸²⁾·거오기⁸³⁾ 등으로도 쓰이고 있다. 『한국지명총람』 所在의 造山類 지명을 개관하면, 순우리말로 지은뫼 혹은 즘⁸⁴⁾라고 하였으며, 형상을 본따 알처럼 생겼다고 알미·알메⁸⁵⁾ 혹은 알봉⁸⁶⁾이라고도 하고, 바구니를 얹어놓은 형상이라 하여 바꾸리봉⁸⁷⁾이라고도 하였고 형국을 본 따 여의주배미⁸⁸⁾라고도 하였다. 조산의 한 형태인 돌탑의 호칭도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性에 따라 할아버지탑·할머니탑⁸⁹⁾, 남자탑·여자탑, 내외탑으로 부르고, 위치에 따라 바깥탑, 안탑이라 하며, 규모에 따라 큰탑, 작은탑 등으로 불리며, 존칭하여 어른, 어르신네, 거리산신님이라고 한다. 지역에 따라서는 거리탑·거리제탑(부산 일원과 제주도), 도탑·도탑뱅이(전북 무주), 造

山(영남)이라고 하며 축문에는 靈塔之神으로 표현된다.⁹⁰⁾ 제주도에서는 돌탑의 기능이 액을 물리친다(去厄)고하여 거오기라고 한다.⁹¹⁾ 돌탑의 기원은 民俗史의 서낭당[累石壇], 園林史의 假山, 裨補史의 裨補塔에서 살펴볼 수 있으며 필자는 裨補塔을 비보 돌탑의 원형으로 추정한다. 앞에서 언급했지만 비보탑이 조선조 이후 불교의 탄압과 함께 종교적 기능은 탈각되고 비보적 기능만 遺存한 채 민간에 수용되어 略化된 형태가 현재의 돌탑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추정은 조산을 '탑'이라고 부르고 있는 데서도 傍證할 수 있고, 형태상에서도 돌탑의 꼭지들은 佛塔의 上輪部가 단순화된 것이며, 돌탑의 내장물도 불탑의 복장물을 모델로 삼아 모방한 것으로 보인다.

비보 조산의 歷史的 始源은 詳細하지 않으나 고려조 신종 원년(1197)에 설치된 山川裨補都監에서 조성하였다는 기록이 있고⁹²⁾, 조선 초 한양의 水口에 假山을 설치하였음도 확인된다.⁹³⁾

조산의 造形形態를 분류하면 흙무지형[土築·土塊], 돌무지형[石積], 林藪形, 혼합형, 古墳 및 遺蹟 轉用形, 天然山 呼稱形 등으로 나뉜다. 흙무지형은 흙을 쌓아 假山을 만든 경우로서 보통은 흙더미 위에 植樹하여 흙의 流失을 방지하고 규모가 外見上 크게 보이는 효과를 얻는다. 돌무지형은 돌탑 혹은 탑이라도 하는데 꼭지돌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이 있으며 제주도의 돌탑은 까마귀모양의 돌을 엮는다. 林藪形은 숲을 조성하여 산으로 삼는데 옛 문헌에는 造山藪⁹⁴⁾라는 명칭으로 나온다. 복합형은 흙, 돌, 숲 등의 여러 형태가 혼재되어 있는 경우이다. 특이하게 옛 고분을 조산으로 삼는 사례도 여러 지역에서 발견된다.⁹⁵⁾ 조산은 새로 조성하기도 하지만 기존의 사탑이나 민간신앙물 혹은 옛 유적을 비보수단으로 轉用하는 사례도 다수 있으며 天然의 산을 조산으로 삼아 호칭하기도 한다. 조산의 數는 하나 혹은 둘[雙]이 가장 많고 경우에 따라, 셋(안동 안막곡조산), 넷(안동 성내조산), 다섯(전남 진안군 하초마을·개성군 진봉면 홍왕리⁹⁶⁾·부평도호부·선산), 일곱(이천시 장록동) 등이 있는데, 선산에 있었던 다섯 개의 조산은 봉황의 다섯 알을 상징하고 일곱의 경우는 복두칠성을 상징한다.⁹⁷⁾ 조산은 住民들이 認知하고 있는 風水地理上의 空缺한 곳을 막는 비보 기능을 한다.⁹⁸⁾ 풍수적으로 虛한 地勢를 도와 地氣가 빠져나가는 것을 막는 동시에 地氣를 저장하는데, “흙을 쌓아 산을 만드니 地氣를 저장하기 위함”이라고 하였다.⁹⁹⁾ 특히 마을조산의 경우는 虛缺·空虛·空遠한 水口를 막고 터를 鎮護하는 기능을 하는 경우가 많다. 곳에 따라서는 형국을 보완하는 기능을 하는데 이 경우 조산은 龍形局에 여의주, 鳳凰形局에

알, 行舟 形局에 돛대의 상징성을 지닌다. 마을에서 마주 보이는 자연경관의 특정 부위가 陰部 형상으로 보이거나 女根 모양의 바위가 있을 경우에도 조산을 쌓아 淫風을 막고자 했는데 이 경우 돌탑의 꼭지들은 남근석으로 인식되기도 하였다. 중국에서 돌을 쌓은 형태의 풍수탑은 산이 많은 남부 지방에 매우 흔하게 나타나는데 風煞을 막는 기능을 하였다.¹⁰⁰⁾ 마을조산은 '돌탑제'라는 마을공동체적 의례가 수반되어 신앙화되기도 하였다. 돌탑신앙은 대체로 풍수지리를 바탕으로 해서 형성되었으며, 탑제는 산신이나 서낭신보다는 하위신인 거리제의 일종으로 주로 정월 초사흘이나 대보름에 산신제를 지내고 나서 행사한다. 돌탑제의 비보적 의미는 신앙이라는 의례를 통함으로써 비보 기능을 더욱 공고히 함에 있다.

조산은 지역에 따라 형태와 기능, 입지 그리고 호칭상 특성을 나타내는데 전남의 우실, 평안·황해도의 수살, 경기북부의 축동, 제주도의 거오기 등이 있다. 전남 지방(신안군, 고흥군, 순천시, 장흥군, 승주군, 진도군)에는 '우실'이라고 있는데 우실은 본디말로 '울실' 즉 마을을 보호하는 울타리를 말하며, 마을 출입구의 허한 곳에 흙담[土牆] 또는 돌각담[石垣]으로 축조하거나 수목으로 조성하는 부분 우실과 마을 주위의 전역을 감싸는 全域 우실이 있다. 우실은 풍수적인 기능으로 防風·補虛 및 氣 漏泄 防止, 左右龍虎의 구실 등을 한다.¹⁰¹⁾ 평안·황해도에서 일컬어지는 '수살'이라는 것도 조산의 기능을 한다.¹⁰²⁾ 경기지방에서 다수 나타나는 축동도 조산의 지역적 한 형태로서 特記할 만하다.¹⁰³⁾ 축동비보는 독을 쌓아 자연 지세를 보완한다는 것인데, 경기북부지역 마을의 경관에서 보이는 축동비보의 일반적 형태는 독 위에 수목을 줄지어 심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축동비보의 기원을 명확히 밝히기는 어려우나 고려조의 築墩 비보가 민간에서 축동으로 굳어진 게 아닐까 추측된다. '墩'이란 약간 높직하고 평평한 땅을 말하는데, 역사적으로 고려 시대에 최충헌이 衛士의 주장을 받아들여 국내 산천이 많이 背走된 것을 이유로 비보도감을 12년 동안이나 설치하고 국내 곳곳에 造山·築墩하여 屢승하였다는 기록이 있다.¹⁰⁴⁾ 축동을 수살 및 우살과 비교해 보면, 형태상 우실·수살과는 달리 '독'을 조성하고 그 위에 나무를 줄지어 심는다는 점이 다르며, 지형적인 조건상 축동비보는 야산이나 구릉지의 저평한 들판이 펼쳐져 있는 지형에 주로 나타나는 비보형태로서 우실 및 수살의 입지와 차이가 있다. 제주도에선 방사 기능을 하는 돌탑이 지배적인 형태로 나타나며 돌탑에 까마귀 모양의 돌을 엮는 것도 특징이다.¹⁰⁵⁾ 호남지방의 경우, 좌도지방의 造塔이나 우도지방의 立石들은 수구맥이 기능으로 마을입구에 세워지는 게 통상적이다.¹⁰⁶⁾

비보숲의 문헌적 명칭은 裨補蔽이며 지방에 따라 숲맥이(경기·경북·충청), 숲쟁이·樹帶(경북) 등으로 불리고 있다.¹⁰⁷⁾ 비보숲은 양식상 廣義의 造山 범주에 걸쳐 있으나 조산에서 실용적으로 발전된 형태로서 本考에서는 조산과 特化하여 서술하였다. 비보숲은 性格上 조산숲과 풍수숲으로 나뉘고, 區域上 고을숲과 마을숲으로 구분될 수 있다.

조산숲과 풍수숲을 대비하자면, 풍수숲은 풍수적 동기로 조성되었고 풍수적 기능을 담당한다는 점, 조산숲과는 달리 숲에 대한 신앙적 의례가 없거나 회박하나 조산숲은 樹木信仰(토착신앙숲)에서 발전한 비보형태로서, 마을신앙적 동기와 기능이 부여되어 있고 숲 가운데에 신앙목이 있는데서 풍수숲과 차이가 난다. 따라서 발생적으로 보자면 토착신앙숲→조산숲→풍수숲의 과정을 나타낸다. 곧 비보숲의 발생적 기원이자 원형인 토착신앙숲은 나말려초 이래로 풍수적 지리관이 뿌리 내리면서 풍수적 비보 기능과 복합되어 풍수숲의 점이적 형태인 조산숲으로 변모하고, 이것은 다시 신앙성이 탈각하면서 풍수숲으로 발전되며 풍수적 논리에 의해 국도, 고을, 마을 등의 취락에 비보수단으로 널리 응용되었다. 풍수숲은 풍수적 결합을 보완하기 위하여 인공적으로 조성한 숲으로서, 고을과 마을에 조성되었던 人工林은 대부분 풍수적 비보사상에 의해 조성되었다.¹⁰⁸⁾ 지역 분포상 경북과 전북은 풍수적 경향의 숲이 주로 나타나고, 경남과 전남과 충북은 토착신앙적 성격의 숲이 많이 나타난다.¹⁰⁹⁾

비보숲의 조성은 고려조 國都의 主山(松嶽)을 위주로 주위의 산에 한정되다가, 조선조 한양에 蔽域의 공간적 범위가 대폭 확대되었고, 禁山 정책으로 체계적인 보전과 관리가 이루어졌다. 國都의 숲비보는 곧이어 지방의 大邑으로 확산되었고, 조선 중기 이후 촌락의 개척과 함께 邑 주변의 마을로 퍼졌다. 비보숲은 壬亂 도중 혹은 이후의 사회질서 혼란기에 훼손되었거나 규모가 축소되었다. 현존하는 숲은 100-200년 정도된 수목이 가장 많이 분포한다.¹¹⁰⁾ 비보숲의 樹種은 촌락(특히 民村)의 경우에 토착림으로서의 혼합 교목이 많고 이는 특히 수구 위치에서 수구막이 기능과 결부되어 있다. 都邑과 班村의 비보림은 소나무를 대표종으로 하고 있다. 風水形局과 결부된 수종으로는 봉황형국에 오동나무와 대나무, 그리고 지네형국에 밤나무를 들 수 있다.

비보숲은 조산의 일반적인 기능인 補虛 藏風과 수구막이 외에도 특수하게는 地氣培養 및 龍脈裨補, 水害防止, 凶相遮蔽 등의 고유 기능을 발휘한다. 보허기능의 숲 중에서 특히 山谷盆地의 보허기능은 수구막이숲으로 일반화되었다. 숲을 활용

한 비보는 기능상 경제적이고 실용적이며 비보효과가 좋아서 취락의 비보수단으로 널리 활용되었다. 숲을 조성하면 물리적인 방풍 등의 비보 효과를 얻을 수 있고, 휴양림 등의 부수적 효과를 거둘 수 있으며, 土築한 흙이 허물어지는 것을 방지하는 제방 보조 역할과, 지형의 시각적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등의 잇점도 있다. 다만 나무의 성장 시간이 비교적 길어 돌담과 같이 비보 효과가 조성 즉시 혹은 단시일 내에 나타나지는 않는 결점이 있다. 이처럼 숲은 조산이 지나는 상징성 및 신앙성과는 달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비보가 가능한 점도 지적할 수가 있겠다. 따라서 비보숲은 방풍, 보온, 홍수방지, 휴양소 역할을 겸하는 多機能的이고 效率的인 비보수단이다.

끝으로 비보못의 일반적 기능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비보못은 地氣를 머물게 한다(留氣). 이에 관한 풍수론 상의 典據로서, 『錦囊經』에 “기는 물에 입하면 머문다(氣界水即止)”는 원리가 있다. 따라서 취락이 경사진 곳에 입지 하여 地氣가 빠져나가는 형국일 때 못을 조성하여 막는다. 그리고 못으로 하여금 藏風의 條件을 보완하는데 조선 초 崇禮門 밖에 못을 판 것은 경복궁의 오른 팔에 해당하는 山勢가 낮고 미약하여 품에 안는 판국이 없기 때문이었다.¹¹¹⁾ 得水 비보의 기능으로서 못을 조성함으로써 基地에서 곧장 빠져나가는 물의 流速을 누그러뜨리기도 한다. 마을과 고을에서 비보못은 흔히 火氣를 방어하는 기능을 갖는데 이는 五行論으로 水는 火를 극하기에[水克火] 火氣가 성한 地勢에 못을 파서 비보 하는 것이다. 그리고 고을에서는 못에 凶相을 비치게 하여 그 기운을 사라지게 하는(呑凶相消泄氣) 경우도 있다. 그밖에도 형국을 보완하는 못도 있는데 이 경우 거북 형국에는 물, 臥牛 형국에는 구유 등의 상징성을 갖는다. 특수한 기능으로는 氣의 相沖을 隔絶시켜 막기도 한다.

5. 동아시아의 풍수비보 양상

동아시아는 風水文化圈을 이루고 있고¹¹²⁾ 비보적 思惟 역시 보편적이거나 비보의 형태, 기능, 규모 등의 측면에서 各國의 문화적 배경 따라 多少 차이가 난다. 동양 3국의 비보 양상을 살피는 일은 비보의 문화적 個性(personality)을 밝히는 작업으로서 여기에는 비보의 源流, 傳播와 變貌, 特性 및 그 背景 등이 多角的으로 살피

저야 하나 本考에서는 다만 비보 형태 및 기능에 초점을 두고 對比하고자 한다.

비보가 중국에서 전파된 것인지 한국에서 자생적으로 발전된 것인지에 대해서는 풍수의 기원만큼이나 論亂의 餘地가 있을 수 있다. 村山智順이 한국 비보법의 원류인 도선의 비보를 중국 풍수사상의 전승으로 본 점이나¹¹³⁾ 何曉昕·羅雋가 평양의 사례를 들어 한국 도읍풍수의 厭勝法은 중국이 母體라고 지적한 것¹¹⁴⁾은 중국의 비보가 한국으로 전파된 것이라는 견해로서 文化傳播의 측면을 지적한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비보의 파급경로를 살펴보면 중국에서 한국을 거쳐 일본으로 전파된 經路와, 중국에서 대만을 거쳐 일본의 오키나와로 전파된 경로로 추정할 수 있겠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일방적으로 문화전파의 측면에서만 생각할 수 없는 점은, 앞의 절에서 살펴보았지만 전래의 巫教에 비보적 문화요소가 자리잡고, 도선의 비보설이 固有한 仙道の 맥을 이었으며, 취락현장에서 다수 발견되는 조산은 古代의 샤머니즘 및 自然信仰에서 발전한 측면이 있는 등 文化發展的인 측면도 看過할 수 없다고 본다.

동양 3국의 비보양상에서 드러나는 유사성은 비보수단 및 방법과 기능에서 나타나고 비보에 민간신앙과 풍수가 복합되어 있는 양태도 닮은 점이다. 다만 한국과 중국에 비해 일본에서는 오키나와를 제외하고는 풍수적 비보가 상대적으로 발전되지 못하였다.

중국은 역사적으로 풍수적 비보를 위해 많은 비용과 노력을 기울였으니¹¹⁵⁾ 各府縣城의 地方志 中에 비보적 사실이 기록되어 있다.¹¹⁶⁾ 중국의 풍수가들은 음양오행론을 비보에 응용하였고 땅의 자연적 형상을 改良하는데 있어서 五行의 작용을 조절하는 術을 창안하였다.¹¹⁷⁾ 중국의 비보적 양상을 J.J.M. Degroot는 아래와 같이 요약하였다.

바위, 산, 평야의 凶相은 조작을 가하여 吉한 수단으로 전환시킨다. 高度가 충분히 높지 못하면 높히고, 災害를 일으키는 물길은 좋게 바꾸며, 마을과 고을의 곁 혹은 뒤에 완충물(fender)로서 숲을 조성한다. 水槽와 못은 水氣의 저장고로서 흉한 氣를 중화하기 위하여 판다. 탑이나 돌무더기도 같은 목적으로 세워진다. 사찰이나 僧院도 해당 지방의 풍수를 공고히 하려는 사람들의 바람으로 건립되었다.¹¹⁸⁾

위 인용문에서는 흉상차폐, 조산비보, 得水비보, 숲비보, 못비보, 사담비보의 사실을 개괄적으로 말하고 있다. 중국의 비보수단 및 방법과 현장사례를 한국의 것

과 對比하여 정리하여 보면 아래와 같다.¹¹⁹⁾

첫째, 중국의 풍수적 비보는 引水法, 곧 물을 끌어들이는 방법을 제1의 주안점으로 둔다. 이점에서 중국의 풍수적 비보는, 한국의 가장 보편적인 비보법인 造山法과 비교된다. 이러한 차이는 한국과는 달리 물이 귀한 중국의 풍토성에서 연유한다. 중국의 풍수서에서 물은 풍수에 있어서의 財源과 吉事의 상징이므로 물을 끌어 들여 기초를 補하는 것이 가장 요점이 된다. 그들은 물이라는 요소도 인위적으로 제어할 수 있다는 태도를 지니고 있다.¹²⁰⁾ 引水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먼저 도랑[溝]과 用水路를 끌어 들이는 방법으로서 이는 實地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며 대표적인 사례가 安徽省 南部의 山間區인 宏村에 있다. 또 다른 방법은 못을 파서 물을 저장하는 것으로서 이와 관련하여 『陽宅會心集』에 “못을 파서 물을 저장하면 地脈을 움트게 하고 眞氣를 배양한다”는 풍수론적 典據가 있다. 여기에는 지형적 조건 따라 다양한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順局으로 널찍한 경우에는 못을 파서 물을 모으고, 來水가 性急할 경우에는 못을 파서 물이 고요하게 흐르게 하며, 煞曜의 방향에 壓迫하는 높은 산이 있어 陰의 煞氣가 쏘아 들어올 경우 못을 파서 純化한다. 중국에서는 自然水가 빠른 속도로 터를 통과하여 흐를 경우 水流의 기세를 완화시키기 위해 묘 혹은 집, 祠堂의 앞쪽에 水槽를 구축한다. 대 저택이나 궁전 그리고 사찰의 경우 水槽는 안뜰의 중앙에 설치하는데 옛부터 그것을 붉은 색으로 칠하였기에 [丹堦] 곧 朱色의 中庭이라고 한다.¹²¹⁾ 이상과 같은 引水法은 풍수적 기능 외에도 현실적인 효과로서 홍수를 방지한다던가, 경관에 對比의 妙를 낳는다. 한국의 경우도 引水法은 물길을 끌어 들여 마을 앞을 두르도록 水路를 修築한다거나, 못을 파서 引水하는데 특히 火氣防禦를 위해 引水法을 시행하는 경우가 많다.

둘째, 중국은 補山이라하여 주로 나무를 심어서 龍의 背後에 있는 砂山을 補하였다. 이 경우는 촌락의 下砂와 水口, 또는 촌락의 背後와 龍山 등지에 시행한다. 중국에는 풍수 상 필요하다면 산을 만들며 기존의 산이 있다면 그것을 이용한다.¹²²⁾ 산을 補하는 방법은 넓게 樹木을 심는 것 외에도, 건물을 건조하거나, 흙을 쌓아 산의 高度를 높이거나, 산의 형상을 改變하기도 한다. 福建省 龍岩縣 銀樹에는 村의 背後에 수목을 심었고, 廣東縣·高要縣에는 來脈의 砂岡을 정비하여 三峰을 형성하였다. 福建省 建 에는 水口에 수목을 심어 광대한 水口林을 형성하였다.¹²³⁾ 이러한 비보유형을 한국에서는 造山이라 통칭하며 그 기능과 방식은 유사하다.

오키나와에서는 촌락의 氣가 漏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촌락 주위에 숲을 조성

하였는데 이것이 오키나와 각지의 마을 주위에 남아 있는 '抱護林'으로서 이는 明治期(1868-1911)에 작성된 고지도에도 묘사되어 있다.¹²⁴⁾ 예컨대 오키나와 북부의 高島의 村에는 腰當森이라고 부르는 숲이 주위를 둘러었는데 이 숲은 水源涵養林으로서 보전되었다. 또한 首里의 王城을 중심으로 弁ヶ의 岳이라던지 白虎에 해당하는 末吉의 숲이 지금에도 훌륭하게 자연림의 숲으로 잔존하여 있다. 또한 中城城의 中村家에는 腰當森에 상응하는 人工的인 작은 언덕을 만들어 놓았다.¹²⁵⁾ 특히 琉球王國은 그 直轄地에 '御風水所'와 '御風水山'을 정하여 樹木과 土石을 관리하고 훼손하지 못하게 하였다.¹²⁶⁾ 이상과 같은 오키나와의 사례는 한국(조선조)의 경우와 매우 흡사한데 특히 '御風水所'는 우리의 경우 '裨補所'라고 하였고 '御風水山'은 '禁山'이라고 하여 조선조에 도성 주위의 산에 대해 체계적인 비보적 관리를 한 바 있다.

셋째, 중국은 風水塔을 두어 龍脈을 鎮定시키고, 水口를 鎮壓하며, 文風을 진작하였다. 이러한 厭勝塔과 文峰塔의 功能은 風水를 鎮壓하며 形勢를 增補하는 기능을 하며 중국 대륙의 各府縣城에 성행하였다.¹²⁷⁾ 風水塔은 불교의 教旨와는 무관할 뿐더러 실용적인 내용도 없다.¹²⁸⁾ 중국 동남부의 여러 촌락에는 주위의 山峰, 頂上, 山腹에 '龍首當鎮'¹²⁹⁾ 혹은 '興文運'의 관념을 지니고 있는 風水塔을 조성하였다. 또 浙江省 龍游의 橫山寶塔은 張祠面山의 봉우리를 누르고 있는데, 이는 산의 형상이 '天馬馳槽'로서 그 머리가 안쪽으로 향하지 아니한 것을 꺼려 탑을 짓고 산을 鎮한 것이다. 비슷한 유형으로 普陀山의 鎮葬塔과 天龍山의 鎮葬塔이 있으며, 江蘇省 常熟縣 城里에 있는 虞山은 山의 形像이 한 마리 늙은 물소가 쭈그려 엎드려 있는 형국이라 牛山이라고도 하는데, 풍수에 근거하여 建造한 方塔이 있어 물소의 뿔로 설명된다. 그밖에도 이러한 풍수탑은 浙江省 紹興 怪山 上의 應天塔 등 많은 곳에 있다.¹³⁰⁾ 한국의 경우에도 풍수탑은 도읍의 대표적인 비보수단으로 활용되었으나 중국처럼 文風을 진흥하는 기능은 없다. 앞서 浙江省 龍游의 橫山寶塔이 산이 달려나가는 형상을 진압한 풍수탑이라고 하였는데, 한국에서도 유사한 기능의 비보사찰로서 청도읍의 德寺가 있다. 이 절은 청도읍의 水口에 있는 주구산이 내뿜는 형세를 하고 있어 사찰로 진압한 것이다.

文峰塔은 文塔·文風塔·文筆塔·文昌塔이라고도 하며 현재에도 많은 수가 향촌에 남아 있다.¹³¹⁾ 이것은 학문적인 기풍을 진흥시키는 상징과 함께 풍수적인 관념의 산물이다. 淸의 高見南이 지은 『相宅經纂』 卷二, 「文筆高塔方位」에 보면, "과거에 합격하지 않는 사람이 나오는 土地에는 甲·巽·丙·丁의 방위에 길지를 선

택하여 文筆尖塔을 짓고 특별히 산보다 높으면 과거에 합격한다”고 적고 있다.¹³²⁾ 文峰塔의 위치는 縣城 교외의 산 위나 시골 및 소도시 출구의 언덕 위에 있다.¹³³⁾ 湖北省 鐘祥縣의 文峰塔은 龍山 위에 唐朝 廣明 元年(880)에 건립되었고 明朝 洪武 22년(1389)에 증건되었다. 貴州 紫雲의 苗族과 布依族 自治縣에도 문필탑이 있는데, 城北의 五峰은 붓걸이가 되고, 城東의 방죽은 벼루가 되어, 이것이 문예의 흥성을 祈求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安徽省 旌德縣城에도 文昌塔이 있는데 이 탑은 旌德縣城의 形像이 ‘五龍出洞’이라 龍이 달아나는 형세이고, 또 縣城 서남쪽에 불꽃같은 형상의 梓山이 있어서 시내에 항상 失火를 야기하기에, 용을 안정시키고 火氣를 鎮壓하기 위해 清朝 乾隆年間(1736-1795)에 조성한 것이다.¹³⁴⁾ 臺灣 澎湖廳城의 紗帽山 頂上에도 돌을 쌓아 탑을 건립하였으니 이 紗帽山의 풍수적 위치는 廳治鎮署 및 書院의 朝案으로서 文風의 진흥을 위한 풍수적 文昌塔이다. 『澎湖廳志』에 의하면 “봉우리 끝이 뾰족하지 않아서 前任 副將 李文瀾이 사람들을 시켜 탑모양의 돌계단으로 만들었는데 높이가 3丈 가량이며 지금도 遺址가 남아 있다”고 적고 있으며, 이 탑은 『澎湖志略』의 輿圖에 그 모양이 묘사되어 있다.¹³⁵⁾

특히 탑으로 水口를 진압하는 방법은 古代 城市에서 허다하게 나타난다. 杭州의 六和塔, 泉州의 溜江塔·六勝塔·姑嫂塔, 廣州의 赤崗塔·海龜塔·浮蓬塔 등이 그 사례로서 탑의 직접적인 기능은 수구를 關鎖하고 形勢를 왕성하게 하며, 보조적으로 運航에 標識을 제공하기도 하였다.¹³⁶⁾ 福建省 泉州市는 3개의 大水口가 있는데 3基의 탑을 써서 서서히 물을 끌어 들였다. 第一水口는 溜江石塔으로, 明의 萬曆年間(1573~1620)에 郡守 蔡繼善이 지세의 균형을 주기 위해 건립하였는데, 山·寶蓋山과 함께 鼎 모양의 지세를 만든 것이다. 第二水口는 石湖의 塔(六勝塔)이며, 第三水口는 石獅鎮의 동남 5리에 있는 寶蓋山上의 姑嫂塔이다. 이 탑은 關鎖塔이라고도 하는데 『晉江縣志』에 “泉州郡을 關鎖하는 水口の 鎮塔”이라고 하였다.¹³⁷⁾

廣州의 水口에도 三座鎮塔이라고 있는데, 이 수구탑이 세워진 동기는 水口가 空虛하고 靈氣가 歸屬되지 않아 人력으로 補하여야 한다는 것이었다.¹³⁸⁾ 이상과 같은 수구비보는 한국에서도 일반적인 비보형태로서 한국에서는 사탑, 樹林, 조선, 장승 등이 수구막이에 활용되었다.

넷째, 중국에서는 廟·閣·亭·樓 등을 설치하여 靈氣를 모으고 殺氣를 방어하였다. 福建省 龍岩新泉村에는 路地의 끝에 土地廟를 설치하여 殺氣를 막았고¹³⁹⁾ 廣州市 북쪽 越秀山 上的 鎮海樓 역시 明代에 조성된 유명한 風水樓이다.¹⁴⁰⁾ 한국의 경우는 비보적 목적으로 院을 설치한 사례가 있다. 진주의 開慶院은 玉峰이 客으

로 節制를 받지 않는 것 같은 기상이 있어 院을 짓고 地氣를 늘렸다.¹⁴¹⁾ 청도읍의 勒院은 고을 서쪽에 있는 渴馬峰의 형국이 渴馬騰之狀(목마른 말이 내달리는 형상)이라서 東軒이 있는 本州의 地靈이 流泄됨을 막기 위해 말에 굴레[勒]를 씌운다는 상징적 이름을 부가하여 勒院이라 명명하였다고 한다.¹⁴²⁾

그밖에 자연물에 비보적 상징의미를 부가한 예로서, “北京에는 과거 ‘五鎮’이 있었는데 동방의 鎮은 黃木安이 되고, 북방의 鎮은 昆明湖가 되며, 중방의 鎮은 景山이 되니 이 셋은 자연물로 비보적 의미를 붙인 것이고, 그 외에 두 개의 鎮은 남방의 烟墩(俗名 石幢)으로 永定門 밖 1리쯤에 있고, 서방의 鎮은 大鐘寺로서 德勝門 밖 큰길 곁에 있다”¹⁴³⁾고 한 바, 자연물에 비보적 의미를 부가하는 것은 한국의 마을 비보에 많이 나타나는데 주로 산에 비보적 역할을 부여하여 造山으로 삼았다. 위 인용문에 나타난 남방이나 서방에서의 불교적 비보형태는 앞서 언급했지만 한국과 일본에도 공통적인 비보유형이었다. 일본의 경우도 “도시는 東寺·西寺로 都入口의 羅城門을 수호하거나 여기 저기에 사찰과 탑 등을 설치하여 방어를 위한 裝置를 둔다”¹⁴⁴⁾고 하였는데 이러한 배치방식은 한국의 여러 고을(예천·전주 등)에도 유사하게 나타난다.

중국, 일본, 대만에서는 풍수적 비보와 민간신앙의 복합적 양상도 주택비보에서 발견된다. 이러한 유형을 『中國風水』의 저자 高友謙은 ‘風水巫術’로 분류하였다. 집터를 안정시키는 符籍으로서 『道藏』의 神符類에 太上秘法鎮宅靈符라고 있으며¹⁴⁵⁾ 특히 중국과 오키나와에는 한국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石敢當’이라는 돌(화강암 石版)을 설치하는 住宅裨補法이 있다. 石敢當은 매우 오랜 淵源을 지니고 있는데 멀리 唐代 大曆 5년(770)으로 거슬러 올라간다.¹⁴⁶⁾ 중국 농촌의 ‘石敢當’은 長方形의 石碑와 ‘鎮山海’라는 神石으로 災厄을 쫓고 百鬼를 鎮壓하는 기능이 있으며 일종의 ‘靈石鎮壓法’으로서 환경을 聖域化하고 改變하는 효과가 있다. 石敢當은 주로 道路가 沖射할 경우에 이를 鎮壓하기 위해 활용되며, 그밖에도 마을 입구, 하천이나 못 연안, 문 앞으로 길에 면한 곳, 항구를 마주 한 대문, 교량, 가옥 등에 설치된다. 가옥의 경우 그것은 구내의 적당한 지점이나 외벽의 안에 위치한다.¹⁴⁷⁾ 이러한 유형은 일본의 오키나와에도 나타나며¹⁴⁸⁾ 삼거리에 石敢 이라는 작은 비석을 설치하는데 그렇게 하면 직진하여 오는 기가 충돌하여도 힘이 옆으로 피하고 어떤 것은 反轉해 버리고 약화된다고 믿는다.¹⁴⁹⁾

이상의 사실을 기초로 하여 한국의 비보와 비교하여 보면, 중국은 引水 비보에 치중하는 반면 한국은 조산비보나 형국비보가 성행하였다는 점에서 차이가 난다.

수구비보의 동기 및 기능은 공통적이거나 한국은 중국에 비해 규모가 작다. 중국은 못을 파서 지맥을 움트게 하거나 凶氣를 純化하고 있으나 한국은 못으로 화재를 방어하거나 地氣의 漏泄을 방지하는 예가 많다. 風水塔으로 文風을 振作하는 형태라든지 廟·閣·亭·樓 등이 殺氣를 防禦하게 하는 것도 한국에서 찾기 어려운 중국의 문화적 배경에서 생겨난 비보적 특성이다. 한국은 중국처럼 凶相에 대한 改造 혹은 造作 보다는 흉상을 遮蔽하는 경우가 많으며, 탑이나 돌무지는 주로 補虛 機能을 담당한다. 풍수와 민간신앙의 복합적 산물로 중국에는 '石敢當'이 있고 이것은 오키나와에까지 波及되었으나 한국에는 발견되지 않고 장승류의 형태가 민속비보의 主種을 이루었다. 불교적 寺塔鎮護의 관념과 배치 방식은 동아시아에 공통적이거나 風水寺塔은 일본에 나타나지 않는다. 琉球王國이 直轄地에 설치한 '御風水所'·'御風水山'은 朝鮮朝의 '裨補所' 및 '禁山'과 같은 것이다.

6. 맺음말

이 글은 한국 비보풍수의 기초를 시론적으로 고찰하여 본 연구로서 본문의 논의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비보풍수론은 풍수와 비보가 결합된 역사적 형태이자 풍수론의 발전적 개념으로서, 기능상 龍脈裨補·藏風裨補, 得水裨補, 形局裨補, 凶相遮蔽, 火氣防禦 등으로 분류될 수 있다. 풍수적 비보론은 역사적으로 한국풍수의 구성체계에서 擇地論과 더불어 양대 축을 이루며, 따라서 마땅히 한국풍수의 이론적 구성요소의 하나로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한국 비보사상의 源流는, 巫敎의 讓災招福 관념에서 비롯하여 산천승배로 표현된 비보적인 자연신앙을 거치고, 도교의 山川鎮壓法과 相地術 및 讖을 흡수하였으며, 仙道的 비보관념, 그리고 불교사상으로서 사리탑신앙으로 대표되는 密敎의 비보사상과 藥師信仰·佛國土思想·禪思想 등의 물줄기가 합쳐져서 이루어진 것으로, 요컨대 그 사상적 系譜는 仙佛融合의 系統으로 규정할 수 있다.

역사상 비보설의 본격적인 출발은 불교적 비보로서, 한반도에서는 가야불교 초기에 첫 모습이 보이지만 비보설의 체계가 잡히기 시작한 시기는 7세기 경 신라 시대부터이다. 그런데 新羅下代 이후 풍수가 강력한 공간적 이데올로기로 자리잡

으면서 불교는 풍수와 교섭하였으며 이에 따라 불교적 비보는 풍수와 결합하였다. 이윽고 풍수설의 성행으로 기존의 불교적 비보는 풍수적 비보와 兩立되거나 혹은 풍수적 비보로 代替되어 나가며, 급기야 풍수적 비보가 불교적 비보를 흡수하게 된다.

동아시아는 보편적인 비보적 思惟를 나타내고 있으며, 비보수단과 방법, 민간신앙과의 복합적 양상 등에서 유사성을 보인다. 다만, 비보형태, 기능, 규모 등의 측면에서 각국의 문화적 배경에 따라 다소 차이가 난다. 중국은 引水 비보에 치중하는 반면 한국은 造山 비보가 성행하였다. 중국에는 풍수탑(文峰塔)으로 문풍을 진작하는 형태가 많은데 이는 중국의 문화적 배경에서 생겨난 비보적 특성이다. 그리고 불교적 鎮護寺塔의 관념과 배치 방식은 동아시아에 공통적이나 풍수사탑은 일본에서 찾기 어렵다.

<미주>

- 1) 이하의 글은 필자의 『嶺南地方의 裨補』(고려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0) 19-94쪽을 토대로 작성한 것임을 밝힌다.
- 2) 『高麗史』卷 77, 百官志 2, 諸司都監各色, 『成宗實錄』3年 3月 10日, 16年 1月 5日.
- 3) 『世宗實錄』30年 3月 8日, 『文宗實錄』7年 4月 18日 條의 記事 등 많은 용례가 있다.
- 4) 『世宗實錄』26年 12月 21日, 『成宗實錄』6年 2月 8日.
- 5) 『成宗實錄』16年 1月 8日·9日
- 6) 『高麗史』卷 78, 志, 食貨, 田制.
- 7) 『高麗史』卷18, 世家, 毅宗 22年 3月 戊子.
- 8) 『三國遺事』卷 第4, 義解 第5, 賣壤梨木.
- 9) 『高麗史』卷 78, 志, 食貨, 田制.
- 10) 『成宗實錄』15年 2月 24日.
- 11) 『燕山君日記實錄』7年 7月 3日.
- 12) 조화는 順應(adjustment)·反應(reaction)·撤回(withdrawal)의 적응 방식에 의해 증대될 수 있다(William Norton, 1989, op.cit., p.150).
- 13) Degroot, J. J. M. 1964, op.cit., p.935.
- 14) 村山智順, 1931, 같은 책, pp.773-774.
- 15) 堀 憲二, 「風水思想と清代台 の城市-官撰地方志を中心史料とした檢討」, 『儒佛道三教思想論攷』平成三年, 山喜房佛書林, p.179.
- 16) 『文宗實錄』1年 4月 14日
- 17) 『文宗實錄』1年 4月 14日.
- 18) 『成宗實錄』16年 1月5日

- 20) 기존에 村山智順은 비보풍수를 풍수적 법술이 발전된 人爲的 風水法이라는 풍수적 범주로 한정하고 있으나 論者는 비보와 풍수가 융합하여 창출된 제3의 개념으로 규정한다.
- 21) 渡邊欣雄, 1994, 『風水氣の景觀地理學』, 人文書院, p.107.
- 22) Yoon, Hong-Key, 1976, Geomantic Relationships Between Culture and Nature in Korea, Asian Folklore and Social Life Monographs, No. 88, The Orient Cultural Service, Taipei, op.cit., p.3.
- 23) 村山智順, 1931, 같은 책, p.762.
- 24) Degroot, J. J. M., 1964, op.cit., p.958.
- 25) 堀 憲二, 「風水思想と清代台 の城市-官撰地方志を中心史料とした検討」, 『儒佛道三教思想論攷』, 平成3年, 山喜房佛書林, p.179.
- 26) 중국의 비보는 물을 끌어 들이는데 「引水」 치중하는 반면, 한국은 조산비보와 같이 산에 강조점을 두고 형국비보가 다수 이루어지고 있다.
- 27) 『錦囊經』, 氣感篇 第一.
- 28) 최창조는 한국풍수설을, 중국풍수의 3요소에 사람을 더하여 4자의 組合으로 구성하였으니(최창조, 1984, 『한국의 풍수사상』, 민음사, p.32) 이러한 논지는 한국풍수의 비보적 속성이 감안된 것이라 판단된다.
- 29) 이병도, 1947, 『高麗時代の 研究』, 亞細亞文化史, p.29.
- 30) 『青烏經』 奎章閣本(도서번호 2329): “山來水回 遍貴豐財 山囚水流 虜王滅侯 山頓水曲 子孫千億 山走水直 從人寄食”
- 31) 『青烏經』: “董斷與石過獨逼側 能生新凶 能消已福”
- 32) 『錦囊經』 奎章閣本(도서번호 1741) 註文.
- 33) “四合周顧 言左右前後無空缺”
- 34) 『雪心賦』: “或龍去虎回 或龍回虎去 回者不宜逼穴 去者須要回頭 蕩然直去不關 必定逃移并敗絕”
- 35) 『錦囊經』 奎章閣本(도서번호 1741).
- 36) 『青烏經』: “山來水回 遍貴豐財 山囚水流 虜王滅侯 山頓水曲 子孫千億 山走水直 從人寄食”
- 37) 『雪心賦』: “取舟楫於前灘”
- 38) 村山智順, 1931, 같은 책, 제2장, p.276.
- 39) 최창조, 1990, 『좋은 땅이란 어디를 말할인가』, 서해문집, p.178: “한국풍수의 이론체계는 同氣感應論, 所主吉凶論, 形局論과 看龍法, 藏風法, 得水法, 定穴法, 坐向論으로 구성된다.”
- 40) 村山智順, 1931, 같은 책, pp.773-774.
- 41) 柳東植, 『韓國巫教의 歷史와 構造』, 연세대출판부, 1989(7판), p.15, 64, 120.
- 42) 위의 책, p.119.
- 43) 『三國遺事』 紀記, 卷第1, 古朝鮮.
- 44) 『三國遺事』 紀異 第1 萬波息笛.
- 45) 『三國史記』 卷第32, 雜誌 第一.
- 46) 『三國遺事』 卷3, 興法3, 寶藏奉老 普德移庵條.
- 47) 何曉昕 著, 宮崎順子 譯, 1995, 같은 책, pp.205-206.

한국의 裨補風水에 관한 始論

- 48) Degroot, J. J. M. 1964, op.cit., pp.936-937.
- 49) 何曉昕 著 宮崎順子 譯, 1995, 같은 책, pp.205-206.
- 50) 『白鷄山玉龍寺贈諡先覺國師碑銘』
- 51) 拙稿, 「道說風水의 본질에 관한 몇가지 論究」, 『應用地理』 제17호, 1994, pp.65-87.
- 52) 이능화 저 이증은 역주, 『朝鮮道敎史』, 보성문화사, 1986, p.26.
- 53) 崔應淸, 「玉龍寺 王師 道說 加封 先覺國師 敎書 及 官誥」, 『東文選』 卷27: “竊妙既極 於佛祖, 緒餘益精於陰陽, 秘術將傳, 忽有異人之來謁, 六通不碍, 妙觀大地而未遺”
- 54) 이능화, 1978, 「風水思想의 研究」, 『李能和全集(續集)』, 韓國學研究所, p.44.
- 55) 『三國史記』 卷 48 列傳 第8, 「勿稽者」와 『三國遺史』 卷5 避隱 第8 「勿稽者」를 참고할 것.
- 56) 『揆園史話·靑鶴集』, 아세아문화사 영인본, p.154: “孝恭王時 玉龍子見之于楓岳山 稚顏童膚提壺而歌 以問年考之幾 八百歲矣 是則七點之裔也--元曉道說托身西教 是乃勿稽之餘韻”
- 57) 『文宗實錄』 1年 4月 14日(壬午)
- 58) 金孝敬, 1940, 「朝鮮佛敎寺院選地に於ける風水信仰影響」, 『佛敎研究』 第4卷 3號, p.32.
- 59) Yoon, Hong-Key, 1976, op.cit., pp.168-169.
- 60) 村山智順·최길성역, 같은 책, p.639
- 61) 추만호, 1991, 「羅末麗初 禪宗思想史 研究」, 고려대 사학과 박사논문, p.149.
- 62) 『高麗史』 卷 78, 志, 食貨, 田制.
- 63) 이병도, 같은 책, p. 276.
- 64) 『高麗史』 卷 77, 百官志 2, 諸司都監各色條: “山川裨補都監, 神宗元年宰樞及重房崔忠獻等集術士議國內山川裨補延基事遂置都監.”
- 65) 『高麗史』 卷 78, 志, 食貨, 田制.
- 66) 『高麗史』 卷38 世家, 恭愍王 1, 壬辰元年: “祖王代創置禪敎寺院所以裨補地德以利國家 今多頽 只有遺基 其有土田者收其租有臧獲者收其庸 以備重修又遵”.
- 67) 『成宗實錄』 16年 1月 8日.
- 68) 『朝鮮의 林藪』, 1928, p.23.
- 69) “七年八月丁酉 御史臺上言 “准尙書工部 奉制羅城東南隅高岸者 所以補都邑之虛缺 今爲川 襄壤 宜徵役夫三四千人修防 當司勸會 其岸傍邊 皆是田疇,恐損禾稼 請待收穫 從之”
- 70) 『成宗實錄』 16年 1月5日.
- 71) 『世宗實錄』 30年 3月 8日: “州府나 郡縣에서 모두 裨補한 것이 있으니, 造山과 種木을 가지고 寬闊한 곳을 보충시킨 것~”
- 72) “양가에서는 定都, 遷都, 離京, 사담건립 등의 막중한 출혈 비보사업을 감행할 수 있었지만 지방도읍은 그러한 무리가 통할 수 없었다. 사담비보가 가장 위력이 있다고는 인정하나 막대한 출혈이 소요되기에 국도가 아닌 도읍에서는 함부로 生靈을 낼 수 없었다. 그러므로 가장 경제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으로 자연물을 이용하는 방법을 택했고, 가급적 府民의 負擔輕減을 위한 압승비보를 택했을 것이다. 또 造山에 神堂을 설치하여 신을 봉안하면 수호신의 진호를 동일하게 받을 수 있다고 믿었다”. (출처: 유증선, 1973, 「안동의 비보풍수신앙 전설과 그 배경」 안동고대 안동문화연구소, 『安東文化』 제4집, pp.21-22).

- 73) 朝鮮總督府林業試驗場, 『朝鮮の林藪』, 1928, p.26.
- 74) 필자는 비보돌탑의 형태적 원형을 비보 불탑으로 본다. 따라서 돌탑의 꼭지들은 불탑의 상륜부를 소략하게 표현한 것이며, 돌탑의 내장물 역시 불탑의 형식을 본받고 있다. 다만, 여기서 누석단으로 일컬어지는 서낭당은 돌탑과 기능 및 형태, 기원 그리고 조성동기가 다른 것으로 돌탑과는 구별하였다.
- 75) “풍수적 비보물로서의 석당간은 조선 후기 군현단위의 유력한 토호 향리세력들이 설립을 주도하였다면, 경제력이 약한 자연촌 단위에서는 행주형 진대를 나무숫대로 세우거나 수구맥이 입석을 선들로 세워 마을의 터지킴이로 삼았던 것이다. 호남지방의 경우, 좌도지방의 造塔이나 우도지방의 立石들은 수구맥이 기능으로 마을입구에 세워지는 게 통상적인데, 이러한 석조물들은 풍수지리와 불교신앙이 결합된 비보사탑의 잔영이라 할 수 있다.”(송화섭, 1994, 『朝鮮後期 마을미륵의 形成背景과 그 性格』, 『韓國思想史學』 제 6집,p.244).
- 76) 송화섭, 위의 논문, pp.225-228. “미륵불의 사례로는 익산 금마면 동고도리 석불과 순창군 순창읍 쌍석불이 있다.”
- 77) 상세한 내용은 拙稿, 2000, 「나말려초의 비보사탑 연구」, 『도선국사 따라 걷는 우리 땅 풍수기행』, 시공사, pp.314-319를 참조할 것.
- 78) 그 중 음락비보와 방위수호 장승의 기준은 모호한데 굳이 구분하자면, 음락비보의 명문은 ‘以鎮地脈’·‘補虛’와 깊은 연관이 있고, 방위수호의 명문은 ‘逐鬼’·‘구체적 五方의 표현’과 결부되어 있다. 또한 음락비보의 벽수나 장승은 비보의 상징물로서 서 있는 자체만으로도 그 임무가 수행되지만, 방위수호의 벽수나 장승은 무속적인 제의와 관련됨에 따라 집단적 제의식을 치러야 하는 점에서도 기능의 분류를 시도할 수 있다.(김두하, 1995, 『벽수와 장승』, 집문당,p.219, 254)
- 79) 김두하, 같은 책, p. 247.
- 80) 이필영, 1989, 「한국 솟대 신앙의 연구」, 연세대 사학과 박사논문, p. 94.
- 81) 김기탁의 연구(1975)에 의하면, 상주시 지역의 洞神祭堂의 형태 중에 樹木累石 神堂은 총 929개의 자연마을 중에 144개 마을에서 나타났고, 累石神堂은 46개 마을에 분포하며 이들은 모두 조산신앙에 포함될 수 있는 것으로서 전체 중에 약 20.4%의 비율을 보인다고 하였다.(金基卓, 1975.12, 『慶北 尙州地域의 部落祭 研究』, 한국문화인류학회, 文化人類學 7輯,p.18.)
- 82) 『新增東國輿地勝覽』 卷25, 禮安縣 山川.
- 83) 제주도의 조산명.
- 84) 강릉시 대전동의 조산명.
- 85) 경기도 강화 갑곶리·조산리, 전남 영광 신성리의 조산명.
- 86) 경북 선산읍, 경북 순흥읍, 경남 함안읍의 조산명.
- 87) 전남 영광군 학산리.
- 88) 전북 고창군 흥덕면 제하리: 마을 뒷산이 伏龍形인데, 용은 여의주가 있어야 한다고 하여 논 가운데 둥그렇게 조산하였다.
- 89) 산청의 내수리에 있는 돌탑은 길가에 두 기가 마주 있는데 할머니탑·할아버지탑이라고 한다.
- 90) 이필영, 1994, 같은 책, p. 303.
- 91) 김영돈, 1972, 『濟州·大靜·旌義 州縣城 石像』 한국문화인류학회, 『문화인류학』 5집.

p.41.

- 92) 權以鐵, 東京雜記刊誤(光文會 本 東京雜記所收): 이병도, 1980, 같은 책, p.276에서 재 인용.
- 93) 『新增東國輿地勝覽』 卷3, 漢城府 山川條: “假山: 在都城水口內訓練院東北, 一在水南 一在水北, 築土爲山似畜地氣.”
- 94) 『新增東國輿地勝覽』 卷25, 禮安縣 山川.
- 95) 경주 봉황대, 경산군 압량면 부적동, 경주 건천읍 금척리, 안동 울곡리, 함안 봉성리 등.
- 96) “개성군 진봉면 홍왕리에 오봉산이라 하는, 논 가운데 나란히 서 있는 다섯 개의 산이 있다. 이것은 고려 말기 권세를 잡았던 신돈이 만든 보허산이라 전해지고 있다. 신돈이 거처한 것은 왕기가 있다는 옛 말 때문이었다. 그런데 이 터를 둘러싼 청룡과 백호가 웅대하고 길기는 하지만, 언제까지나 나란히 뻗어가고 있어 포용의 기운을 이루지 못했다. 모처럼의 훌륭한 터지만, 남쪽이 虛해서는 왕기가 이 방향으로 흩어져 버린다고 하기 때문에, 여기에 토목공사를 해서 그 땅 앞에 다섯 개의 假山을 만들어서, 기운을 왕성하게 하려 했던 것이다.”(村山智順, 같은 책, p.284)
- 97) 이천시 장록동 앞에는 북두칠성 모양을 상징하여 만든 조산이 있다. 한글학회에서 펴낸 『한국지명총람』에는 조산이 ‘마을의 허한 것을 막기 위해 만들었다’고 하여 마을비보적 기능의 조산으로 적고 있으나, 마을과는 관계없이 정씨 연일 정씨의 선산을 비보하기 위하여 조성한 것이다(제보(99.12.22): 주민 박용원 씨(66세, 이천시 장록동 349-8호)). 정씨의 선산 언덕에서 바라보이는 앞 들 가운데에 小路를 따라 칠성을 상징하는 일곱의 흙무더기를 놓고 그 흙무더기 위에는 각각 나무가 서 있다. 이 조산의 조성은 일제시기에 정기용씨가 추진한 것으로 주민들은 증언하고 있으며 당시 장록리 주민들도 참여하였다고 한다. 조성 동기는 선산의 전방의 허결하여 寒山을 인위적으로 조성한 것으로 추정된다. 북두칠성을 상징한 모양으로 조산한 것은 매우 독특한 발상의 비보형태로서 주목된다.
- 98) 이남식은, 풍수적 비보 기능 외에도 마을과 들, 들과 산을 구별짓는 경계표적 기능, 穀靈의 성소, 혹은 곡령신앙의 祭場으로서의 기능 등이 있으며, 하나의 조산이 이들 기능 가운데 몇 개를 가질 수도 있으나 대체로 하나의 주된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정리하고 있다.(이남식, 1989.10. 『造山誌』, 『두산김택규박사화갑기념 문화인류학논총』, p.174)
- 99) 『新增東國輿地勝覽』 漢城府 山川條: “假山: ~ 築土爲山, 似畜地氣.”
- 100) Degroot, J. J. M. 1964, op.cit., p.941.
- 101) 최덕원, 「우실(村垣)의 信仰考」, 『한국 민속학 22』, 1989, 9, pp. 109-122.
- 102) “장승·소도 등을 中部朝鮮에서는 수살목 또는 수사리라 並稱하고 또 평안·황해도의 處處에서는 일견 방풍림과 같이 촌락 앞(地民의 소위 허한 방위)에 列植하는 숲(林)도 수살목이라 일컫고 또 촌락의 허한 방위(三方이 산으로 둘러 싸여 있고 한쪽이 原野 또는 바다로 된 경우에 후자는 허한 방위라 하고 또 촌락 한쪽에 공포감을 주는 險深한 山谷이 있으면 그 쪽에 수살목을 열식하여 이를 막는다)에 세우는 Y자 형의 입목(소도와 흡사하나 頂部가 Y형이오 頂上의 새도 없다)도 수살목이라 한다. 이 수살의 의미는 명백하지 못하나 守煞이 아닐까 한다. 邪氣를 방어한다는 의미일 것이다.”(孫晉泰, 『蘇塗考』, 『朝鮮民族文化의 研究』, 을유문화사, 1948, pp.193-194)

- 103) 拙稿, 1999, 『경기북부의 풍수신앙』, 『경기민속지』 2, 경기도박물관 : “경기북부지역의 마을에 있는 축동의 경우를 몇 가지 측면으로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기능상 공통적으로 보허·올타리·방풍 기능을 하고 있으며, 연천군 읍내리, 백의리, 포천 조가채리 등의 경우는 수구막이 기능을 겸하고 있다. 축동의 위치는 마을 입구(포천 조가채리, 포천 독곡), 마을 서편 바람이 불어오는 곳(김포 바리미), 수구부위(연천군 읍내리, 백의리), 마을 앞(김포 초당말, 파주 아동리) 등이다. 축동이 마을 신앙소(당)가 되는 경우도 신북면 기지리 독곡, 남양주군 진전면 사릉리·진관리 등이 있었다.”
- 104) 權以鏞, 東京雜記刊誤(光文會 本 東京雜記所收): 이병도, 1980, 같은 책, p.276에서 재인용.
- 105) 제주에서는 방사탑을 흔히 거오기라 한다. 돌무더기를 둥그렇게 쌓아올린 다음 木製의 鳥形을 만들어 얹어서 풍수지리적 邪氣를 막는다. 거오기는 去厄이란 말에서 유래되었다는 말이 있다. 제주시 외도동·덕지동에 있고 대정읍 인성리는 復建했고 성읍리에도 세웠다. 州縣城 石像 역시 비슷한 기능이 있다고 믿고 있다.(김영돈, 같은 논문, p.41) 애월읍 광지리에는 거옥대가 있는데 이웃 마을의 굴이 마을을 비추기 때문에 불길하다 해서 防邪하는 뜻으로 세웠다. 거옥대는 높이 약 3m로서 고무레를 거꾸로 세워 놓은 것 같다.(이필영, 같은 논문, p.94) 제주시 이호2동 골(갈)앞마을에는 방사탑이 있는데 젊은 남녀들이 요절하는 일이 많아 지관과 상의했더니 마을 서북쪽 언덕에 있는 바위의 모양이 너울을 뒤집어 쓴 홀어미의 형상이라고 하여 주민들이 바위를 부수고 바위가 있던 자리와 맞세워 탑 5개를 세웠다. 탑 위에 까마귀 모양의 돌을 얹어 놓았다.(이기남, 같은 논문, p.38) 탑은 60년 전쯤에 만들어 졌다고 한다. 탑 두기만 까마귀가 있고 나머지 두기는 없다. 애월읍 어도리의 방사탑은 위협하는 형상의 언덕이 있어서 맞서게 탑을 세우고 邪氣를 진압하였다.
- 106) 송화섭, 1994, 같은 논문, p.244.
- 107) 김학범, 1991, 같은 논문, p.14, 19, 57.
김학범·장동수, 1994, 같은 책, p.104.
- 108) 김학범, 1991, 같은 논문, p.14.
- 109) 김학범·장동수, 『마을숲』, 열화당, 1994, p.22.
- 110) 위의 책, p.42.
- 111) 『世宗實錄』 15年 7月 21日
- 112) 風水文化圈이라는 용어는 『地理』 38-11, 1993, 12에서 町田宗博(『東アジア風水文化圈での沖繩』), 前田良一(『アジアは風水文化圈』) 등이 쓰고 있다.
- 113) 村山智順, 1931, 같은 책, p.280.
- 114) 何曉昕·羅雋, 1995, 『風水史』, 上海文藝出版社, pp.238-239 : “평양성의 행주 형국의 鎮壓을 위해서 쇠뿔을 내린 사례가 中國 泉州의 염승법 전설과 유사하다”
- 115) Degroot, J. J. M. 1964, op.cit., p.958.
- 116) 堀 憲二, 平成三年, 같은 책, p.180.
- 117) Degroot, J.J.M. 1964, op.cit., p.958.
- 118) Ibid., p.1034.
- 119) 이하는 다음의 글을 주로 정리한 것임. 何曉昕 著 宮崎順子 譯, 1995, 같은 책, pp. 121-133.

- 120) Degroot, J. J. M., 1964, op.cit., p.946.
- 121) ibid, p.946: “대사원과 궁전은 가장 크고 깊은 丹甍을 지니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바닥이 포장되어 있고 주위의 모든 면은 화강암·대리석·백운석 등의 내모진 石材로 둘러있다.”
- 122) 渡邊欣雄, 같은 책, p.23.
- 124) 目崎茂和, 1993.12, 「風水思想は環境を求えるか」, 『地理』 38-11, p.21.
- 125) 위의 책, pp.100-101.
- 126) 目崎茂和, 1993. 12, 같은 글, pp. 21-22.
- 127) 堀 憲二, 平成三年, 같은 책, p.180.
- 128) 高友謙, 『中國風水』, 中國華僑出版公司, 1992, p. 170.
- 129) 龍脈의 머리 부분을 鎮撫하는 역할.
- 130) 高友謙, 1992, 같은 책, p.171.
- 131) 위의 책, p.265.
- 132) 何 曉昕 著 宮崎順子 譯, 1995, 같은 책, pp.149-151.
- 133) 高友謙, 1992, 같은 책, p.265. 貴州 都勻市 區內 劍江 兩岸의 文峰塔은 明代 萬曆 年間(1573~1620)에 조성된 것이다.
- 134) 위의 책, pp.265-266. 그밖에 陝西省 韓城縣에도 文星塔이 있어 산천형세를 비보하기 위해 조성되었다.
- 135) 堀 憲二, 平成三年, 같은 책, p.180.
- 136) 위의 책, p.172.
- 137) 何曉昕 著 宮崎順子 譯, 1995, 같은 책, pp.192-193.
- 138) “廣州 第一水口の 鎮塔을 赤崗塔이라고 한다. 赤崗 동쪽으로 25리 지점에 沙洲가 있고 강 가운데에 있는 하나의 산 위에 탑이 있으니 廣州 第二水口の 鎮塔으로 海龜塔이라 한다. 다시 아래로 내려가면 虎門에 당도하는데 탑 하나가 있어 海口를 묶으니 이것이 廣州 第三水口の 鎮塔으로 浮蓬塔이다”〈高友謙, 1992, 같은 책, p.171〉.
- 139) 何 曉昕 著 宮崎順子 譯, 1995, 같은 책, p.152.
- 140) 위의 책, p.174.
- 141) 『新增東國輿地勝覽』 卷30, 晉州牧 驛院: “~郡誌所謂玉峰也. 其峰有若爲客而不爲管攝者, 構其院曰開慶, 蓋所以禳之也.”
- 142) 『慶北마을지』 中, 1991, p.753. 淸道文化院, 1996, 『마을地名由來誌』, p.141.
- 143) 高友謙, 1992, 같은 책, p.173.
- 144) 위의 책, p.26: “명당 모델의 도시에 가장 위험한 지점은 네거리와 삼거리인데, 直進하여 오는 氣가 서로 충돌하는 장소이기 때문이다. 기의 부딪침을 약화하기 위하여 일본이라면 네거리와 삼거리에 地藏 등을 설치한 것이 아닐까한다.”
- 145) 葛兆光 著 沈揆昊 譯, 같은 책, p.415.
- 146) 何曉昕 著 宮崎順子 譯, 1995, 같은 책, pp.181-183. 高友謙, 1992, 같은 책, p.159-161.
- 147) Degroot, J. J. M., 1964, op.cit., pp.1041-1042.
- 148) “오키나와의 경우, 1667년에 최초로 地理師 혹은 風水師가 중국에 유학하여 지리를 배우고 돌아왔다. 1761년부터 1786년까지 북부지방(國頭)의 5곳, 중부지방(中頭)에 8곳, 남부지방(島尻)의 16곳에 촌락이 이동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반드시 풍수사 혹은

은 지리사가 그곳 토지의 좋고 나쁨을 판정한 후에 이루어졌다. 오키나와에는 적극적으로 王府에서 풍수를 받아들여서 광범위하게 민간에 전파되었으며 서서히 촌락의 풍수로부터 주택, 묘지 등의 경관에 영향을 주었다.”〈출처: 目崎茂和, 『風水思想から地域環システムを境解く』, 『景観から地域像をよむ』, 愛知大學綜合郷土研究所編, 名著出版, 1992, p.85〉

149) 위의 책, p.26.